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은장군

평양출판사

주체111(2022)년

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은장군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책을 내면서

격동의 시대가 흐른다.

내외의 온갖 도전과 역풍을 길들이며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불러온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줄기차게 흐른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조선민족의 모습이였지만 오늘 우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은 사상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틀어쥐고 기세차게 약진하며 세계의 강국전렬에 해돋이마냥 솟구쳐오른 **김정은**조선. 그 광휘로운 모습은 세기적전환의 대전경화라 해야 할것이다. 그것이 안고있는 시대적진폭은 무한대이다.

눈서리속에서 소나무의 청청함을 강렬히 느낄수 있듯이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우리 인민이 자기의 전략적지위와 위력을 얼마나 아득한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시대와 력사, 후대들앞에 얼마나 떳떳한가를 세계가, 겨레가 똑똑히 보고있다.

세계여론들이 평하고있듯이 조선은 《미국이 무시할수 없는 너무도 강한 존재》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바로 조선에 의해 국제사회의 정치적지각과 력학적 구도의 변경이 이루어지고있는것이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하다면 그 어떤 철의 주먹이기에 적대세력들의 지배와 패권, 강권과 압제에 맞받아 과감히 돌진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가.

그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세계의 정치분석가들은 그것이 조선의 **김정은**령도자의 폭넓은 정치경륜과 령활한 외교지략, 출중한 령도력과 비상한 전개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에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장군의 지도력의 특징은 난관을 강행돌파하는 단호함과 대담한 공격정신이며 이것은 **김정은**장군의 혁명방식, 투쟁기질이라고 평하였다.

정녕 그렇다.

일찌기 아리스토 텔레스는 정치지도자를 《선장》에 비유한바 있다. 성스러운 위업의 선두에는 언제나 위대한 영웅이 서있기마련이다.

걸출한 령도자를 모셔야 민족이 존엄있고 강대한 민족으로 될수 있다. 새로운 시대, 격동의 시대를 불러오는 근원은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위인의 불멸의 의지와 령도

력에 있다. 시대가 위인을 낳는것이 아니라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안아온다.

이러한 력사발전의 흐름은 필연이며 과학이다.

우리 조선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무적의 강국으로 되게 하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억척부동의 신념과 의지는 공화국을 령도하여오신 지난 성스러운 10년세월 변함이 없으시였으니 위대한 강국시대를 안아오시는 길에서 발현된 강철의 령장의 담력과 배짱은 온 세계를 매일 매 시각 놀라움과 경탄의 도가니속에 끓어번지게 하였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의 길우에서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이 비축되고 첨단전략무기체계들이 련속 개발완성되는 속에 우리 식의 강력한 주체탄들이 련이어 솟구쳐올라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적대세력들은 전률하고있다.

《조선의 힘이 세계질서의 중심축이 되고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바로 우주공간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태양동기극궤도를 선점한 나라 조선이다.》, 《조선에서 뿜어져나오는 **김정은**령도자의 힘은 세계에 뻗치며 세계<초대국>이라 하는 미국도 뒤흔들어놓고있다.》, 《조선의 지도자는 너무나도 강한 상대이고 그것은 완강한 의지와 출중한 정신력을 지닌 비범성에 있다.》는 국제정치평론가들의 토로는 조선의 힘,

천하제일명장 **김정은**장군의 위대한 힘의 진정한 의미와 거대한 무게에 대한 격찬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 그이의 힘은 폭제의 격랑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힘으로 발산하고있다.

그것은 조선을 세기의 령마루에 우뚝 솟구쳐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빛내여주시는 불패의 힘, 오늘뿐 아니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시는 무한대의 힘,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가장 굳건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정의의 힘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초점이 미국을 위시한 외세의 간섭과 강압에 정면으로 맞서시는 희세의 령장, 세계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 명석한 지략으로 적대세력에 맞서 기적의 련승을 창조하시여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할수 있게 하여주신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장군께로 집중되고 온 겨레의 마음이 그이께로 거침없이 쏠리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이렇듯 높이 떨쳐지고 온 세계의 시선이 우리 공화국에 쏠린 그런

시기가 있었던가.

충격과 격동, 기쁨과 환희속에 21세기 력사의 시계가 명실공히 **김정은**조선을 축으로 기운차게 돌아간다.

그것은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장군의 한계가 없는 정의의 힘, 무적의 힘에 의해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력사를 안아오고 비뚤어진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며 자주와 정의에로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김정은**조선의 장쾌한 흐름이다.

진정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장군의 만고불멸의 거룩하신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그 거대한 생명력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킬것이며 강대한 이 조선은 무궁토록 **김정은**장군의 나라로 자주와 정의, 세계평화의 표대로 창공높이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편집부는 조선을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전렬에 보무당당히 올려세우시여 민족의 힘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민족운명의 수호자, 만고절세의 영웅, 희세의 천출위인 **김정은**원수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담은 도서를 내놓는다.

차 례

제1장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새 지평을 열다

제2장 세계적인 강국전렬에 솟구쳐오르다

제3장 김정은조선-전쟁억제력의 사명과 역할

제4장 정의의 억센 힘 행성에 뻗치다

제 1 장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새 지평을 열다

1. 김정은시대의 력사적선언

주체101(2012)년 4월 15일이 밝아왔다.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의 이날 조선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되였다.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온 공화국무장력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이 온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열병종대들이 광장을 꽉 메우고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무적의 총대대오, 최첨단군사기술기재로 튼튼히 장비된 기계화종대들이 광장과 잇닿은 대통로들에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조국통일》 등의 구호가 열병광장에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창공높이 날아올랐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령적인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수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공식연설을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위대한 령장의 담담하고도 저력있는 음성이 온 광장에, 아니 온 세계에 울려가는데 무적

의 총대를 틀어쥔 열병군인들의 눈가에도, 광장의 통로들을 꽉 메우고있는 환영군중들의 얼굴마다에도 감격과 격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의 남녀로소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하신 음성에 경건히 귀기울이며 마음속으로 그이의 가까이에 자신들을 따라세우고있었다.

폭풍마냥 일어번지는 온 나라 인민의 사랑과 성원을 헤아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넋으로 조선을, 인민을 껴안아 행성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시며 연설을 이어가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습니다.》

로숙하고 세련된 위대한 정치가의 품위가 안겨오는 연설의 구절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온 열병대오가, 온 나라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삼가 우러르는데 군건설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그리고 그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이 무진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줄것입니다.》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 폭탄같은 선언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의 주제였으며 주체위업의 100년사에 대한 총화이고 앞으로의 승리를 담보하는 총공격작전의 화살표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이라고,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 뭉쳐진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결속하시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끝마치시자 전체 열병장병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천만인민에게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였다.

드디여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김정은**원수님의 호소를 명령으로 접한 기세충천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조국수호전과 반제대결전에서 자랑찬 영웅서사시를 수놓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 광장을 행진해가는 열병대오마다에는 백절불굴의 기상이 용솟음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석단앞을 지나는 열병대오들에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과시인양 열병대원들의 힘찬 발구름소리가 온 광장을 쾅쾅 울리며 메아리쳤다.

이윽고 기마종대와 함께 각종 포, 장갑차, 땅크, 미싸일을 비롯하여 백두령장들의 위대한 손길아래 자라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기계화종대들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단숨에 깔아뭉개며 달려나갈 무쇠철갑의 무한궤도들, 멸적의 기상이 나래치는 만장약된 강철포신들과 미싸일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썰며 날아예는 영용한 비행종대들, 기계화종대들은 침략의 무리들이 조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불벼락, 강력한

타격을 안길 최대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천만인민의 도도한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열병식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의 공고성과 불패성,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세력들을 전률케 한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을 중국, 로씨야, 미국, 일본, 도이췰란드, 영국, 스웨리예, 에스빠냐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온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였다. 세계의 1만 2 000여개의 출판보도물들이 특대소식으로 광범히 전하였는가 하면 세계 5대륙의 수억명이 열병식을 시청하면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언론들은 이날의 열병식을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조선의 새 지도부의 정치강령이며 장엄한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젊으신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장래가 기대된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식에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

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줄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며 무력시위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고 거기에 등장한 무장장비들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급급하였다.

특히 최신형미싸일이 공개된데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신형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떠들었다.

그것이 어떠한 무장장비인가에 대해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2012년 4월 23일호)는 《북조선이 4.15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세상에 공개한것은 세계에서 오직 5개국만이 가진 최첨단국방공업체계를 완비하였음을 실물로 립증한것이다. 북조선, 미국, 로씨야, 중국, 프랑스 다섯 나라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들지만 초대형발사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도로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드는 나라는 북조선, 로씨야, 중국 세 나라뿐이다. 북조선은 도로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드는 세계 3대핵강국이다.》, 《놀랍게도 북조선은 핵강국들인 미국, 중국, 로씨야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들어내는 최첨단국방공업체계를 운영해온것이다. 북조선이 11 000㎞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만든 까닭은 멀리 떨어져있는 적국의 수도를 직접 위협하려는 작전적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였다.

열병식이 있은 후 미국회 하원 청문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빌 클린톤, 죠지 W 부쉬, 버락 오바마행정부는 모두 조선에 <배반>당하였다. 지난 15일 대규모열병식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은 향후 대조선정책의 험로를 보여준다.》고 아우성쳤다.

미국에 있어서 조선의 신형무장장비의 공개는 저들의 세계지배주의적인 핵전략실현에 최대의 중대상황이 아닐수 없었다.

바로 이해 2012년의 정초에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군사행동을 규정한 새로운 군사전략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도적지위 유지: 21세기 국방에서의 우선적인 임무》라는 제목으로 된 새로운 군사전략보고서의 골자는 지금까지 유럽과 중동지역에 중점을 두던 전략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긴다는것,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것을 내용으로 하던 이전의 군사전략을 한개 전쟁수행, 한개 분쟁억제로 조정한다는것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 및 장기적인 동반자관계 확립,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의 《도발》을 억제, 견제하는것을 새로운 국방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핵잠수함, 스텔스전투폭격기, 미싸일방어체계, 우주무기 등을 유지강화하여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였다.

공정한 세계여론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이전의 세계

전략, 군사전략들을 재검토하고 정립한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노린 힘의 대결정책이며 가장 반동적이고 위험한 선전포고문건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핵무기를 세계제패를 위한 관건적인 요소로 더욱 유지강화하도록 정책화한 핵전쟁전략이며 특히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해외군사작전의 중심무대로 설정하여 이 지역에서 일본과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틀어쥐고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시아태평양전략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전쟁로선이였다.

그 배경의 하나는 지정학적위치에 있다. 면적과 인구수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는 경제가 빨리 장성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체계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방대한 시장을 요구하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의 구미를 부쩍 돋구어주고있다. 최악의 경제적위기상태에 놓여있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손을 뻗치지 않고서는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그들의 타산이였다.

그 배경의 다른 하나는 전략적면에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적수로 되고있는 나라들이 집중되여있다. 인구수에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고 반제자주력량, 사회주의력량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곳도 이 지역이다. 이로부터 미국전략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통제권확보여부에 따라 저들의 세계전략의 승패가 좌우될것

으로 보았다.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추종국가들과 앞잡이들을 침략과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기도를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에 반영한것도 이와 관련된다.

미국은 랭전종식후 무모한 군사비지출로 하여 쇠퇴몰락하고 군사적으로 기진맥진해졌다. 반면에 새세기에 들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구도가 달라졌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련의 추종국들이 미국에 크게 기대를 걸려 하지 않았다. 이에 급해맞은 미국이 내든것이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와 장기적인 동반자관계확립정책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커다란 군사경제적잠재력과 침략전쟁경험을 가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있다. 눅거리대포밥으로 써먹을수 있는 남조선도 있다.

미국은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남조선을 더욱 틀어쥐고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에 리용하려는 속타산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3각군사동맹화를 다그치자는것이다. 미국이 내든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정책은 사실상 최악의 대리전쟁정책이다.

미국은 이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강력한 무력으로 뒤받침하려 하고있다. 이곳에는 미항공모함 11척중 6척이 배치되여있

으며 그밖에 각종 함선 200여척, 핵무기 6 500여개 등이 전개되여있다는것이 세론의 평이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중동과 유럽의 미군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배비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반제자주력량, 사회주의력량을 압살하기 위한 대규모의 해외군사작전을 이 지역에서 펼치려는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의 가장 큰 위험성은 조선반도에서 제2의 조선전쟁, 핵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있다.

미호전세력들은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기본은 대아시아정책이며 그중에서도 조선반도가 기본초점》이라고 하면서 그 론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조선반도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절대적인 리익을 담보할수 없고 세계적판도에서 새 국제질서의 수립, 미국의 주도적지위와 역할을 담보할수 없다.》

미국에서 출판된 도서 《두개 조선》은 《조선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로씨야 이 4개국의 리해관계와 안정보장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세계유일의 지역이다.》라고 했다.

조선반도를 장악하고 이곳을 전략적거점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틀어쥐며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인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국의 독바람은

국제정세에 미칠 파란만장의 사태를 예고해주며 사람들속에 불안과 위구심을 불러냈다.

이것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실제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최후발악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있었다.

조선반도는 말그대로 핵전쟁의 위험성이 고전압으로 충전되여있는 세계의 열핵지역, 핵폭발점으로 되고있었다.

어떤 사물현상이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가리켜 《갈데까지 갔다.》고 한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대는 더욱 두껍게 얼어붙고 한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 민족은 핵전쟁재앙을 겪게 될것이였다.

세계의 여론이 제2차 조선전쟁, 조선반도에서의 열핵대전의 발발에 대하여 떠들면서 그 피해상황까지 선전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았다.

사태발전은 미국의 세계지배주의적인 핵정책에 종지부를 찍는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과제로 된다는것을 립증하였다.

미국의 강도적인 핵전략에 당당히 맞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정, 평화를 안아올 힘은 있는가.

조선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조선과 미국사이의 정치군사적, 사상정신적힘을 총발동한

힘의 대결, 전례없는 핵대결에서 누가 승패를 결정할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현대적무장장비는 미국이 수천억US$를 들여 오랜 기간동안 구축한 핵전쟁전략이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말았다는것을 인식시키였다고 내외여론은 평가하였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대세력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폭탄같은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미국은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허둥지둥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사실 미국이 새로운 세계지배질서의 핀으로 작용할 대조선군사전략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방전략이라는것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김정일**장군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고 조미대결전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준비해둔 전쟁억제력앞에 물먹은 담벽과 마찬가지였으니 여기에 미국의 비극이 있는것이다.

미국이 핵전쟁으로 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침략적국방전략은 이렇게 시초에 탁상공론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국력중의 국력은 군력이다.

군력이 약하면 경제력이 강하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다 해도, 과학기술발전수준이 높고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다 해도 국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강력한 군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이라는것, 강력한 군력이 있어 강국이 있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군력이자 국력이고 국력이자 군력이라고 하는것이다.

조선은 이미 두차례의 지하핵시험을 거쳐 핵보유국임을 립증한 상태에서 원자탄의 운반체로 될 미싸일발사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는데 세계여론의 시각대로 공화국이 11 000㎞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마련하였다면 세계미싸일전력판도에 지각변동의 경종을 울리고 적대적조미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 의미를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세계의 언론은 평하였다.

그러면서 세계언론은 조선에 서뿔리 핵공갈을 가하다가 오히려 핵보복을 당할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확장된 핵억지의 인계철선》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을 철군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밖에 없다고 암울한 앞날을 진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의 력사적의미는 미국이 장장 수십년에 걸쳐 핵으로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으며 반대로 조선이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압살책동과 핵전쟁책동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대응하며 승리를 향하여 노도처럼 진군하는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졌음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는데 있다.

미국의 강권이 자주와 정의를 짓밟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진리는 오직 힘으로만 담보된다.

핵에는 핵으로! 바로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담력과 배짱, 승리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것을 힘있게 호소하신 그때로부터 불과 얼마 안되는 사이에 우리 조국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로 국제정치무대에 우뚝 솟구쳐올랐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과 어깨겯고 팔을 끼고 자욱자욱 험산준령을 넘고 천지풍파를 밀어내며 공화국인민은 그것을 온넋으로 뛰는 맥박으로 절감하며 체험할수 있었다.

☆ 국제사회의 교훈

모든 사물현상, 세상만사는 그에 작용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발전한다. 원인없는 결과,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원인이란 있을수 없다.

일찌기 어느한 병법가는 《외부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내부에 감춰있는 진실을 추측하며 과거에 의해 미래를 통찰할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정치의 현상을 파헤쳐 그 속성을 진단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면 조선을 전쟁억제력보유에로 추동한 요인 즉 국제사회의 교훈으로 본 그 불가피성과 필연성,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력대로 세계정치의 중심에 렬강들이 서있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껏 세계정치무대는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힘을 겨루

는 시합장이 되여왔고 초대국들의 지배주의적야망에 따라 정치흐름이 달라지군 하였다.

원자탄, 수소탄을 휘두르는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앞에서 성원국들의 자주적권리와 안전보장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유엔기구들까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전락되는 형편이다.

그런데 미국의 핵독점체제아래서 전쟁억제력은 아무 나라나 가질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독점체제에 맞붙어 싸우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만이 가질수 있는 최고의 정치무기이며 전략무기이다. 이로 하여 국제정치무대에서 핵을 보유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전 쏘련의 한 과학자는 전후 첫 시기 쏘련인민이 겪은 고난의 원인은 중요하게 국가가 핵무기연구와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한데 있다고 하면서 당시 자기 나라가 핵무기생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설계, 제작사업을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하여 거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것을 다 동원하였다고 말하였다.

어느한 나라의 예술영화에는 원자탄을 만들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모래바람과 짠물을 마시며 번듯하게 터전을 다지자/ 미국놈이 우리를 얕본다/ 허리를 쭉 펴기 위해/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라는 노래가 있다.

핵보유가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힘든

일인가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이다.

세상에는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핵대국들의 압력과 제재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더우기 세계지도를 펼쳐 우리 공화국과 미국을 찾아보면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령토상의 차이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공화국은 12만 3 000㎢이고 미국은 982만 6 630㎢로서 우리 공화국보다 수십배, 인구수만 보더라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비해 10여배나 더 많은 나라이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과 조선은 국가규모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소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군사적대결을 한다는것은 공화국에 있어서 참으로 힘에 부친 일이다.

그것도 한두해도 아닌 오랜 기간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다는것은 웬간한 각오와 의지가 없이는, 난관과 어려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헌데 어찌하여 조선은 허리띠를 몇번이나 조이고 피와 땀을 쏟으면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할수밖에 없었는가.

그 력사적필연성, 불가피성은 어디에 있는가.

마땅히 핵무기를 만능으로 휘두르며 세계를 씹어삼키려 발광하고있는 미국이라는 거만한 괴물의 지배주의적이고 패권주

의적인 진속이 무엇인가를 파헤쳐보아야 한다.

원래 핵에네르기의 발견은 과학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현대물리학이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중의 하나이다.

핵은 1911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핵의 구조가 밝혀진 때로부터 그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였으며 마침내 원자핵이 분렬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였다.

그후 1937년에는 우라니움의 핵분렬과정이 발견되였다.

얼마후에는 1kg의 우라니움-235의 핵들이 분렬될 때 무려 3 000t의 석탄이 탈 때와 맞먹는 거대한 에네르기가 나온다는것이 발견되여 세계과학계를 흥분시켰다.

인류의 과학과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오게 될 핵에네르기는 세계제패를 야망하던 나치스도이췰란드에서 세계대전을 앞둔 시기에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과학적발견의 기쁨에 앞서 인류에게 참으로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핵에네르기의 혜택을 입느냐, 그것으로 인한 핵참화를 당하느냐.

결국 핵은 제국주의독점물이 됨으로써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있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핵참화와 같은 인류사상 가장 비참한 사변을 초래하는데 리용당하였다.

이는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신성한 과학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였다. 이는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혜와 노력과 지어는 생명까지 바친 세계의 량심있는 과학자들

에 대한 횡포한 우롱으로 인류과학사에 가슴아프고 수치스러운 한페지로 기록되였다.

1945년 7월 최초의 핵무기시험이 성공되였을 때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원자탄을 우리가 먼저 쓰게 해준데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오늘부터 세계는 미국의 발밑에 놓이게 되였다.》고 떠벌이였다.

원자탄이 제국주의의 손에 먼저 들어가고 미국이 핵제왕으로 등장한것은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였다.

그 첫 소유자가 미국인것으로 하여, 오래동안 대국들의 독점물로 되여온것으로 하여 핵은 지배와 패권, 강권과 압제의 수단, 전쟁과 공포의 대명사였다.

사람들이 핵무기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기라는 공포의식과 함께 핵범죄자 미국을 떠올리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력사는 길고 시대는 빠르다고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힘의 론리, 힘의 질서, 힘의 통치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 즉 미국의 핵만능의 론리, 핵만능의 질서, 핵만능의 통치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을 위수로 한 제국주의세력들은 핵무기를 휘둘러 세계를 재분할할것을 꿈꾸면서 그 실행에 광분하고있는것이 부정할수 없는 현실세계이다. 패권쟁탈과 국력경쟁이 최극단으로 치닫고 도처에서 대립과 충돌이 속출하여 불안과 위기의식이

증대된 오늘과 같은 시기는 정말 흔치 않다.

마치 짜놓은 프로그람과도 같이 세계곳곳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전쟁들과 그칠새 없는 민족간, 종족간 대립과 모순들, 잇달은 제도전복사태들, 약육강식의 지배권쟁탈전과 같은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현실이 그것을 방불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런 속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유럽은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였다. 여론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것처럼 유럽으로 사정없이 흘러드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하고있다고 아우성쳤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론평에서 피난민사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광분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라는데 대해 폭로한바 있다.

지금 핵무기를 휘두르며 새로운 지배전략과 자원쟁탈을 위해 깊숙한 흉심속에서 꿈틀거리는 미국의 야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무자비하고 포악해지고있다.

미국의 침략수법은 자위적국방력의 포기를 강요하는데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인 1999년 3월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공습, 2003년 3월의 이라크전쟁, 2011년의

리비아사태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꼬쏘보에 있는 안전군을 철수하도록 강박하고 그 자리를 꼬쏘보군이 차지하도록 한 다음 꼬쏘보사태를 재차 일으키고 이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공습하였다.

이라크전쟁개시전에도 미국은 이 나라의 무장장비에서 주력을 이루고있던 미싸일들을 비롯한 군사시설들을 이라크사람들자신이 파괴하도록 하고는 전쟁을 도발하고 단숨에 먹어치웠다.

리비아사태는 더욱 험악했다.

이 나라를 오래전부터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미국은 리비아가 수십년간 추진해오던 핵계획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토성원국들을 부추겨 파도식타격으로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다. 이것은 미국이 대상나라의 군사력을 무장해제시키고 불의의 타격으로 침략과 전쟁책동을 감행하는것이 주요침략수법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여기에 공격대상나라들의 내부문제를 국제화하고 다국적제재를 가하다가 군사적타격에로 이행하는 수법도 배합하고있다.

미국과 서방의 침략적공세를 받은 나라들은 그전에 하나같이 내부문제가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론의거리로 되고 종당에는 부정의와 비법적인 활동으로 락인되였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꼬쏘보문제,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문제, 리비아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미국의 각본에 의해 제재조치와 무력침공의 구실로 되였다.

여기에는 반드시 《원조제공》과 《관계정상화》라는 회유와 기만술책도 뒤따랐다.

미국은 군사력증강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으면 번영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탕발린 소리를 끈질기게 늘어놓았다. 이때 이 나라들은 다른 대국들에 기대를 걸고 한걸음, 두걸음 양보하였다.

해당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미국주도의 나토군이나 다국적군이 쳐들어와도 다른 대국들이 막아줄것이라고 타산하였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무력침공이 있기 전에 실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대국들의 군사적약속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전쟁마당에서 대국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근년간에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들과 하나로 련결시켜보면 미국과 서방에 환상과 미련을 가졌다가 비참하게 배반당하고 가차없이 먹히우는것이 피할수 없는 운명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중동지역의 한 권위있는 정치평론가는 《서방은 절대로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며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적이다. 그들은 그 어떤 협정도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무원칙하고 야심만만한 무리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벗이 없으며 오직 리기적인 리해관계만이 있을뿐이다. 이자들에게 있어서 <제때에 배반하는자가 선견지명이 있는자이다.>라는 말은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있다.》고 지탄하였다.

왜 그런가.

전쟁과 략탈 그자체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으로 되고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공정한 시각으로 보는 정치사가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은 《쌍둥이 검은 칼》이라고 지탄했다.

이미 히틀러는 《전쟁은 영원하고 전쟁은 보편적이며 전쟁이야말로 생활이다. 모든 싸움은 전쟁이며 전쟁은 만물의 근원이다. 전쟁과 폭력은 생활과 생명의 가장 단순한 긍정이며 인간성취의 최고절정이다.》라고 하면서 집권기간 수천만명이상의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20세기중엽 미국의 어느한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는 전쟁경제이며 우리의 번영은 전쟁번영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바와 같이 전쟁을 떠나 생존할수 없는것이, 력사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총소리를 내는것이 미국이고 붕괴의 마지막유서를 남길 때까지 화약냄새를 풍기는것이 미국인것이다. 전쟁과 략

탈이야말로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라는 괴물에게 있어서 생존하게 하는 공기이고 식량이며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지금도 국제무대에서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일으키는것을 업으로 삼고있다.

여기에서 그 수단이 다름아닌 핵무기이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조셉 거슨박사는 《제국과 폭탄: 미국은 세계지배를 위해 어떻게 핵무기를 리용했나》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핵무기는 억지를 위한것》이라는 미국정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사기》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에는 세계최대의 핵위협국가가 미국이라고 주장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다.

미국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미국은 1942년이후 핵무기개발단계부터 미래의 적대국인 이전 쏘련견제를 념두에 두었고 이후 1946년 이란주둔 이전 쏘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핵위협을 가한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개 나라에 핵위협을 가해왔다. 미국은 인류를 대상으로 핵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한 목적은 두가지였다.

첫째는 핵폭탄의 실제 위력을 시험, 과시하기 위한것이다.

이때문에 사흘간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플루토니움형, 우라니움형의 각기 다른 형태의 핵폭탄을 투하한것이다.

이에 대해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에 참여했던 미국의 텔포드 테일러검사는 《첫번째 원폭투하는 그렇다쳐도 두번째 원폭투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지탄했다.

다른 하나는 쏘련에 대한 무력과시를 통해 전후처리를 저들 마음대로 하기 위한것이였다.

미국이 서둘러 원자탄투하를 감행한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

이것은 결국 핵무기가 물리학과 군사에 관한 문제일뿐 아니라 정치적문제라는것을 실증해준다.

핵무기를 틀어쥔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미국식해석에 따라 정의가 부정의로 되는 현실, 큰 나라에 굴종하고 아부하지 않으면 발전과 성장의 길도 막혀버리고 자주와 원칙을 말하면 《범죄》와 《악》으로 락인되는 모순에 찬 현실, 세계핵대국들의 의사에 따라 국제정세도, 력사의 흐름도 변화되여온 무시할수 없는 오늘의 지구상에서 얻은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이 핵의 일반공리이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핵보유국가로 하여금 비핵국가에 대해

엄청난 불평등적우위를 갖게 해준다. 재래식무기가 량적으로 아무리 많고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전략무기(핵무기)와 상대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핵무장국가가 비핵국가에 대해 군사적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저항할수 있는 군사적수단이 없기때문에 비핵국가는 항상 절대적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정치경제적, 군사적으로 국가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다.

그런데 량쪽이 다 핵무기를 가졌을 때 불평등적우위가 사라지고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멸할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수 있는 《이상한 무기》라고 이야기된다.

핵무기의 국제정치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수 없기때문에 평화공존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세계적으로 랭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사이에는 리해관계의 모순으로 인한 대립은 늘 있었으나 군사적충돌은 없었다.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

들끼리는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이 보편적진리처럼 되고있다.

그런 견지에서 이미 남조선의 《자주민보》(2013년 4월 12일)에 실린 다음의 글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핵탄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쟁수단을 사용하여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를 초토화하였다. 그로부터 68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교전 쌍방이 핵탄을 서로 쏘는 핵전쟁은 한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방세계 전쟁사가들에 따르면 랭전시기에 미국과 쏘련은 핵교전이 불러올 파괴의 후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있었기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재래식폭약(TNT) 100만t에 이르는 Mt급핵탄을 쏘는 무차별핵공격과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대량살륙을 상상하였기때문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것이다.

전술핵탄과 정밀타격기술을 움켜쥔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였던 북에게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하였다.

1970년대에 미국은 핵강국인 쏘련과는 핵군축협상을 벌리고 또 다른 핵강국인 중국과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면서도 비핵국가인 북에 대해서는 핵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6.25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정전상태에서 핵위협을 받아야 했던 북은 미국의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받

은 유일한 피해국이다.

…

하다면 조선이 찾은 교훈은 무엇인가.

핵무기를 보유한 렬강들에 의하여 좌우지되여온 세계질서하에서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외부의 군사적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할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와 인민의 존재자체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제일 귀중한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것이 존엄을 지키는 힘이다.

그러자면 마땅히 강적과 맞서 누를수 있는 강한 주먹을 마련해야 한다. 약한 주먹을 가지고는 강적과 싸워 이길수 없다. 주먹이 강할수록 전쟁을 억제하는 작용도 큰 법이다.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공갈과 회유술책이 강화될수록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틀어쥐고 철벽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바로 이것이 미국의 부단한 핵위협과 압살공세속에 놓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국제사회가 준 교훈이고 력사의 증명이다.

2. 정의의 힘을 안고 태동하는 조선

평화적위성발사는 자주적권리

주체101(2012)년 12월 12일.

력사의 이날은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세계우주개발사에 새로운 기록을 써넣은 민족사에 특기할 날이다.

이날에 과감히 치솟아올라 성공적으로 발사된 《광명성-3》호 2호기는 공화국의 산림자원분포정형과 자연피해정도, 알곡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이 100% 국산화된 것이다.

1계단, 2계단, 3계단으로 이루어진 운반로케트 《은하-3》이 성과적으로 분리되고 발사후 9분 27초만인 9시 59분 13초에 인공지구위성은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성공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조선의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을 제일먼저 공식화한것은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였다.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지구주위궤도에 조선의 위성이 나타났다고 세상에 발표하였던것이다.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레이다추적자료를 공개하고있는 미국정부싸이트에도 해당 비행체가 《북조선의 인공위성》으로 등록되였다.

미국우주전문가인 하바드－스미스소니안 우주물리학쎈터의 죠나썬 맥도웰은 12일에 발사된 운반로케트 《은하－3》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완전한 성공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지구주위궤도를 도는 조선의 위성이 나타났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계산해본데 의하면 《39026, 2012－072A》로 확인한 물체는 조선위성이라는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이름있는 우주개발전문가 이고리 리쏘브는 어느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조선이 세계적으로 지구궤도에 우주기구를 진입시킬 능력을 가진 몇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세계 각국의 주요출판보도물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특대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 보도사,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가디언》

신문, 프랑스의 AFP통신, 오스트랄리아 ABC방송, 미국의 AP통신, CNN방송, CBS방송, ABC방송,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을 선언》 등의 제목으로 긴급보도하였다.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의 위성발사성공에 대해 미국도 인정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는것을 당당히 보여주었다고 전하였다.

수많은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단체들도 조선의 위성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담화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첨단에 올라선 공화국의 과학기술과 막강한 종합적국력에 대해 세계가 놀라와하고 경탄하였다.

《로케트기술, 발사기술, 본체기술에서 전체적으로 전진》, 《실용화된 조선의 인공지구위성기술》, 《3계단분리후의 유도조종기술을 획득한 조선》, 《명백한것은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보유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이다.》, 《조선의 과학기술수준이 그토록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는것이 놀랍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의 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이 우주에 치달아올랐다는것을 공인한것이다.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그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보여준다.

경제적잠재력과 함께 고도과학기술을 가지고있어야 인공지

구위성을 발사할수 있다.

운반로케트본체로는 우주공간의 가혹한 조건에 견디여낼수 있는 특수한 금속재료를 써야 한다. 로케트를 우주로 떠올리는 연료도 첨단과학기술이 없어가지고서는 해결할수 없다. 우주에 발사한 인공지구위성을 조종하는 기술도 최첨단기술이다. 이 모든 기술은 극비중의 극비로 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경제력을 자랑해도 인공지구위성을 제힘으로 발사할수 없다.

김정은조선은 과학기술의 상상봉에 올라서야 해결할수 있는 그 모든것을 완전무결하게 소유하였다. 자체의 힘, 자체의 력량으로 운반로케트도 인공지구위성도 다 만들어내여 성과적으로 우주에 쏴올렸던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위성이 발사되자 1계단분리점, 2계단분리점, 3계단분리점, 계단별락점 등 공화국이 이미 공개한 수자들이 정확히 들어맞는가를 해부해보았다. 미국은 공화국의 위성이 찍어가는 선과 점들, 수자들이 너무도 정확한데 놀랐으며 조선의 위성이 설계된 자리길그대로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고 보도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정은조선이 우주강국대렬에 확고히 들어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성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남조선의 《통일뉴스》는 《광명성이 지구에 남

긴 진귀한 사연들》이라는 글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있지만 2012년 12월 12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솟구쳐오른 북의 첫 실용위성만큼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위성은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첫 실용위성은 다른 나라의 실용위성들과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선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의 최대강적인 북이 북에서 말하는 <21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며 마침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으니 근심과 걱정이 커졌을것이다. 그래서 북의 위성발사가 성공하였다는 긴급정보를 받은 백악관은 그 정보를 받자마자 미국동부시간대로 한밤중인데도 긴급성명을 내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다른 한편 북측시각으로 보면 북의 첫 실용위성은 북에서 말하는 <21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100% 자력갱생의 위성이여서 특별하고 미국과 추종국들의 온갖 제재와 세계 최장기봉쇄를 무력화시킨 부전완승의 위성이여서 특별하고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실용위성을 꼭 발사하라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유훈을 실현한 유훈관철의 위성이여서 특별한것이다.

북은 앞으로 그런 특별한 위성을 계속 쏘아올릴것이다. 지구궤도를 돌고있는 <광명성-3>호 2호기는 크기가 작은 위성이지만 그 작은 위성이 북의 우주개발분야에서 열어놓은

미래는 밝다. 우주강국을 향한 **김정은**제1위원장님의 의지가 강렬하고 우주공간기술위원회 과학자, 기술자들의 충정과 실력이 대단하기에 밝아보이는것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국제적으로 우주개발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은 이 분야가 경제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주과학기술분야에 1US$를 투자하면 경제전반분야에서 8US$의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 우주과학기술은 이처럼 실리가 크다.

하기에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여기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있다.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평화적인 우주진출과 그 리용을 통하여 인류생활은 보다 증진되였다. 전지구위치측정체계, 통신위성들만 놓고보아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수 있고 언제든지 지구의 임의의 대상과 통신련계를 취할수 있으며 그곳의 환경도 자기가 직접 목격하듯 볼수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발전의 생명선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될것이라고 하는것은 우주를 리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해 우주로 진출하는것은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공화국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평화적인 우주진출의 선택권,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지향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자원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놓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일관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확고부동한 결심을 지니시고 위성의 성과적발사를 위해 애국헌신의 숭고한 려정을 이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우주정복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도록 활력을 부어주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우주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으며 우리 식의 우주산업이 창설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서 실용위성의 성공적발사를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커다란 관심과 지도밑에 공화국의 우주과학기술발전에서 또 하나의 력사적리정표로 되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야말로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공화국의 평화적우주리용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주정복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위성과 운반로케트들의 보유를 강성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주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우주정복자들에게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혜를 다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온 나라를 최첨단돌파전에로 더욱 힘차게 떠밀어주었다.

조선은 앞날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아름다운 리상, 확고한

결심속에 2013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한 나라와 인민의 꿈과 약진의 기세를 가로막는 차거운 설한풍이 이 땅에 들이닥쳤다.

유엔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횡과 야합, 흥정으로 일구어진 이 독바람의 진원지는 태평양건너 미국이였다.

애초부터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장거리미싸일발사》로 갖은 험담을 다하고 방해하던 미국이였다.

《광명성-3》호 2호기가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한 그때로부터 해를 넘겨가며 유엔《결의》에 대한 《란폭한 파기행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미국은 끝내 유엔을 발동하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제재결의》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위성발사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보편적권리이며 당당한 주권행사이다.

우주조약에는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되여있다.

조선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우주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들에 가입하였으며 철저히 국제법에 준하여 평화적 위성발사를 진행하였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를 앞두고 공화국은 사전에 해당 국제기구와 나라들에 발사예정시간과 방향, 추진체락하지점과 궤도자리길 등을 통보해주어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과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하였다.

《광명성-3》호 2호기가 발사된지 3시간만에 《조선의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한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위성도 로케트도 그 잔해도 미국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위성에 위성목록고유번호 《39026》, 국제식별부호 《2012-072A》라는것까지 달아 그 존재를 공식 인정하였다.

로씨야를 비롯한 유럽지역 나라들도 우주궤도를 정확히 돌면서 밝은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광명성-3》호 2호기위성을 관측하고 촬영까지 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설사 위성을 발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것이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유엔<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억지를 쓰며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뿐만아니라 《강력한 대응》과 《고강도제재》를 운운하며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불법》, 《비법》으로

몰아대면서 유엔에 끌고가 천만부당한 《제재결의》를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렸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발악적책동으로 2013년 1월 22일 유엔에서는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공화국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 2087호가 조작되였다.

인류가 우주에 위성을 쏴올리기 시작한이래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9 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였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도발로 매도되여 유엔에 상정되고 《제재결의》까지 조작된것은 력사상 처음이다.

언제인가 한 재미동포가 세계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이 모두 7 143개나 되며 그중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올린 로씨야(3 954개), 미국(1 926개), 중국(202개), 일본(167개)을 실례로 들면서 《북에게만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지 말라고 함부로 강박하는것은 초등학교아이들이 들어봐도 억지이며 망발》이라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유엔《결의》 2087호의 내용을 보면 악랄하기 그지없다. 조선이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할수 없을뿐 아니라 조선과 금융거래를 가지는 나라들도 제재하게 되여있으며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민수용품목의 대조선수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여있다.

심지어 조선이 인공위성발사와 핵시험 및 미싸일시험을 계

속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유엔이 추가결의를 조작해낼수 있도록 《방아쇠》조항이라는것까지 포함되였다.

이 세상에 인공위성을 쏴올리고 이렇듯 가혹한 제재를 당한 나라가 그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든 론거라는것이 공화국이 자주권수호를 위해 진행한 1차, 2차핵시험때 저들이 제멋대로 꾸며낸 유엔《결의》 1718호와 1874호이다. 이 《결의》들에는 우리 공화국이 더이상 핵시험이나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는 임의의 발사를 하지 말데 대한 강도적인 요구가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진행된 모든 위성발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위성을 쏘아올리고있단 말인가.

문제는 《제재결의》를 조작한지 얼마 안있어 일본과 남조선에서도 위성을 발사한것이다. 조선의 위성에 대해 그처럼 귀아프게 떠들던 미국과 추종국가들은 이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된듯 함구무언이였다.

저들이나 동맹국들은 군사적목적의 위성발사를 해도 아무일 없고 조선은 평화적위성발사를 해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된다는 론리는 얼마나 강도적이며 천만부당한것인가.

오죽하면 남조선과 서방언론들까지 《같은 방식의 위성발사

인데 북이 하면 미싸일발사로 되고 다른 나라가 하면 위성발사로 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론리》라고 야유하였겠는가.

하지만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요하면서 유엔주재 미국대표란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북조선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는것이 미국의 립장이기때문에 다른 성원국들모두 지지찬동해나서야 한다.》고 폭언을 하면서 오만하게 놀아댔다.

미국의 립장을 다른 유엔성원국들모두가 지지찬동해나서야 한다는 그의 언행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제 마음대로 주물러대려는 미국의 거만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부정의와 이중기준이 《합법화》되는 사태를 빚어내는 장본인이 미국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다.

이렇듯 세계《유일초대국》행세를 하면서 국제문제들을 저들리익의 견지에서 지배주의전략에 따라 처리하려 덤벼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던것이다.

그들이 노린 목적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방해, 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비법화하자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조선에 국제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화국이 평화적위성발사계획실현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하자는것이였다.

《결의》는 또한 조선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다. 제재는 해당 나라에 대한 압력과 공갈이며 자주권과 발전권, 인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렬하고 반동적인것은 경제제재이다. 그것은 이것이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인민들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가장 오래동안 그리고 가장 부당하고 악랄하게 제재를 가하여왔다.

대조선《제재결의》 2087호 역시 조선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포악한 적대적조치들로 꾸며져있다.

악랄성, 위험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같은 《제재결의》는 조선에 대한 강도적인 과학발전억제, 경제파탄책동이며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제동을 걸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목표를 관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민을 질식시키기 위한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였다.

보다 엄중한것은 공화국의 군사적잠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북침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힘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침략전쟁책동의 일환이 아닐수 없었다는것이다.

총적으로 그것은 조선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인것이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결의들을 전면 배격하고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하며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즉시에 그를 위한 실무적조치들이 취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고 지도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정세와 정황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이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성명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것이라는 립장을 밝힌바와 같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높은 국가적중대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그렇다.

적대세력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덤벼들고 지구가 통채로 깨여진대도 끄떡하지 않을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결심은 곧 조선의 결심이며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자주적존엄의 장쾌한 뢰성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결심, 조선의 실천을 알리는 자주적존엄의 장쾌한 뢰성이 터져올랐다.

주체102(2013)년 2월 12일 조선의 지심깊이에서 강력한 지진파가 일어 즉시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이냐.

4.5br, 4.9br, 5br, 5.1br…

지진파발생후 불과 몇시간동안에 조선반도주변국가들은 물론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각이한 견해와 측정결과를 내놓으며 조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촉각을 세웠다.

그날 조선중앙통신사는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데 대한 다음과 같은 보도를 날리였다.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체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

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였다.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다. …

조선이 제3차 지하핵시험을 진행한 후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폭발규모가 과거 최대》, 폭발로 인한 《위력이 1차때보다는 10배가까이, 2차때보다는 2배정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발언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정확하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립증해주고있었다.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적대세력들과의 투쟁에서 한치의 양보와 추호의 타협도 모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단호한 립장과 백두의 천출명장

을 받들어 한다면 하는 조선의 결단성과 배짱, 실천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을 통하여 **김정은**조선은 제국주의자들과 추종세력들에게 그 어떤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압력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강력한 대응조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안전을 견결히 수호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였다.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민족사적대경사,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적인 우주개발계획의 쾌승이라면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강타를 안긴 조선인민의 자주권의 일대 시위, 자주의 핵뢰성이였다.

실로 핵시험의 성공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희세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결단과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천출명장의 령도밑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면상을 통쾌하게 후려갈기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억척같이 다지는 세기적기적을 또다시 창조하였던것이다.

제3차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적도전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조선의 핵억제력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적대세력들은 전률하였다.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당국자들은 또다시 《조선반도지역안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이니,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니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추가적인 유엔《제재결의》조작에 광분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끝끝내 2013년 3월 7일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결의》 2094호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것은 이미전의 유엔《제재결의》 2087호를 한층 도발적으로 심화시킨것으로서 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완전히 봉쇄하고 공화국을 고립, 질식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된 악독하기 그지없는것이였다.

우리 공화국과 련결된 모든 통로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검색검문을 강화하며 공화국을 출입하는 임의의 선박을 강제로 수색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조선비행기의 리착륙과 령공통과도 받아들일수 없게 하였다.

이와 함께 핵 및 탄도미싸일개발에 쓰일수 있는 자금이 흘러들수 있다는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이 해외에 은행지점이나 출장사무소를 개설할수 없도록 하고 다른 나라가 조선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협력을 할수 없게 하였으며 지어 우리 공화국 외교일군들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도록 해놓았다.

《제재결의》 2094호는 이러한 조항들에 강제적성격을 부여하여 제재에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을 처벌하도록 하였을뿐 아니라 조선이 추가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핵시험을 하는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최후통첩조항까지 박아놓았다.

유엔이 생겨 자주독립국가에 대해 이처럼 흉악무도하고 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었다. 그것은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정의와 진리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였다.

핵무기를 맨 처음 만들어내여 무려 1 000여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고 인류에게 실제적인 핵참화를 들씌운 특대형핵범죄자 미국이 자위적핵시험을 단 3번 진행한 조선에 대해 유엔까지 동원하여 제재압살책동에 광분하는것이야말로 얼마나 강도적심보인가.

미국주도하의 범죄적인 유엔《제재결의》 2094호조작은 사실상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의 의미를 지녔다. 미국의 부추김에 의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이 결국 평화와 안전을 위협당하는 나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불법무법의 흉악무도한 결정을 우리 공화국의 인민이 격분에 차서 반대배격해나선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짙어가고있었다.

유엔을 통하여 조선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문제시하고 그를 통해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며 모든 자주적권리를 빼앗고 존엄을 유린하기 위한 고강도제재를 조작한 미국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미 사태를 전쟁에로 끌고갈 간악한 흉심을 품은 미국은 제재책동과 병행하여 전면적인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나섰다.

미국은 남조선과 야합하여 남조선전역에서 북침을 가상한 륙해공군의 각종 전쟁연습들을 일제히 립체적으로 벌려놓았다. 2월에만도 미 제7공군과 남조선공군이 함께 《전시작전준비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동해와 서해에서 남조선해군이 대규모적인 해상기동훈련을 감행하였으며 미군과 남조선군이 조선동해에서 또다시 방대한 해상무력을 투입하여 련합대잠수함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군은 새로 개발배비한 신형함대순항미싸일들의 발사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며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제3차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맞춤형억제전략》에 《선제타격》개념을 포함시킬 모의가 벌어졌다.

미군과 남조선군은 우리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는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되고 《유엔군》의 모자를 쓴 추종국가무력까지 참가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섰다.

미국의 침략적기도는 2013년 3월과 4월 두달동안에 진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2013년에 진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와는 대비할수 없는 폭과 양상을 띠고 감행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100여발의 핵탄과 90～100대의 전투기들을 각각 탑재할수 있는 2척의 핵항공모함타격집단, 핵폭탄투하를 전문으로 하는 전략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었다. 또한 2003년 《이라크자유작전》때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처음으로 발사한 《샤이엔》호를 비롯하여 7척의 핵잠수함들을 남조선과 괌도주변해역에 투입하였다.

한개의 항공모함타격집단이 현대전에서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무력이라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이것을 념두에 둘 때 투입된 핵전쟁장비들의 규모와 움직임은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었다.

원래 미국은 공화국의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구실로 군사적조치와 봉쇄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미국은 여러 차례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통하여 그것을 만회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3월과 4월 두달동안의 군사연습에 영국, 단마르크, 오스트랄리아, 꼴롬비아, 카나다의 무력을 참가시킨 사실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 감행한 전쟁들에서 써먹던 수법그대로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은 미국이 핵선제타격에 의한 전쟁도발을 노리고 감행한데 있었다.

이것은 반제대결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극도의 핵공갈로서 미국의 반공화국침략기도의 전모를 드러내보인 무모한 군사적적대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구실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책동하였다. 이미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성공을 범죄시한 《제재결의》조작으로 최종적인 반공화국공세의 이른바 《정당성》과 국제적환경을 조성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핵전쟁연습소동에 대하여 《북의 위협》에 대응한 《억제수단》이니, 《북핵위협》에 대한 《강력대응》이니 하면서 여론을 우롱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핵위기》를 조성하고 그것을 남에게 넘겨씌우려는 도발자들의 또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

았다.

이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3년 2월 23일 판문점대표부를 통하여 미제침략군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그 순간부터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통지문을 발송한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가증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임의의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기에 빠져들었다.

말그대로 미국의 북침핵전쟁마차는 고삐가 풀린채 거침없이 굴러가고있었다.

조선의 분노는 폭발점에로 치달았다.

공화국인민은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적제재와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반제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군과 남조선군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여오던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릴것이라는 중대조치를 발표하였다.

당초에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오래 존재하여야 할 필요

성은 없다. 정전은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중지를 의미한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였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원칙적제안들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들을 모조리 외면하고 거부해나섰다. 미국의 립장은 단 한가지, 정전상태를 근근히 유지하다가 기회를 보아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전 조선을 강점하자는 것이였다.

이미 1953년 11월 미국은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 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관한 최종목표로 규정한 미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170호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은 대조선침략정책을 임의의 시각에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연막장치로, 전쟁도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으로 리용되여왔다.

미국의 정전협정파괴책동으로 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은 오래전에 해체되였고 정전협정에 따르는 감시 및 통제기능도 완전히 상실당하였다.

미군과 남조선군,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은 핵전쟁소동은 허

울만 남은 조선정전협정을 더이상 존속시켰댔자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3월 11일, 바로 이날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였다.

미국이 침략전쟁을 선택했다면 조선은 정의의 전쟁을 선택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은 공화국인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전체 인민이 총을 들고 무섭게 일떠섰다.

이 땅의 남녀로소가 최후결사전에 나섰다.

온 나라가 말그대로 불도가니가 되여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초소와 전호가, 일터와 거리, 마을과 가정들에서 용암처럼 터져오르는 이 나라 인민의 분노와 복수의 함성이 강산을 진동하였다.

— 백악관, 청와대, … 악의 본거지들이 분분초초 우리의 사격권안에 들어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정세를 격화시켜 전쟁에로 몰아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 이제 더는 결판을 미룰수 없다.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500만개의 총폭탄이 되여 원쑤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낼것이다!

— 60여년간 맺히고맺힌 응어리를 풀고 조국통일의 통장훈을 부를 력사적시각이 드디여 왔다. 조국이여, 우리 로병들

에게도 총을 달라!

말 못하는 산천초목도 서리발치고 온 나라가 멸적의 분화구를 찾아 이글이글 끓었다. 총을 잡을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서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열풍이 일었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가 전호를 차지하고 각 기관, 단위들에서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갔다.

일터와 학원에서 로동과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소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적대세력들에 대한 격멸의 의지가 차넘쳤다.

그즈음 련일 전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소식은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적아 쌍방에 다치면 터질듯한 긴장한 기운이 감돌던 그 시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최전방의 인민군부대들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인민군장병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이 나날 조국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시기 위하여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 자리잡은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또다시 시찰하시였다.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에 오르시여 감시소현대화정형과 방

어대가 타격할 대연평도의 적대상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수 있게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령해,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대연평도가 바라보이는 무도영웅방어대의 감시소에 오르시여서도 방어대의 력량배치상태와 전투준비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평도서방어부대를 포함한 서해 5개 섬에 증강배치된 적들의 새로운 화력타격수단과 대상물들에 대하여 재확정하시고 정밀타격순차와 질서를 규정해주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백령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백령도의 적배치상태와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료해하고나시여 적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주시면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도 비준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속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쩍하면 예

민한 열점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해대고있는 적들을 자신께서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싸움의 날 불바다에 잠기고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적진을 방어대장이 직접 사진을 찍어 최고사령부에 전송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는 병사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몸도 서슴없이 내대시는 어버이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수없이 꽃펴났다.

그이께서 일촉즉발의 서남전선 최남단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실 때에도 먼저 알아보신것은 군인들의 건강상태였고 방어대의 지휘관들에 이어 만나신 첫 사람들도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섬방어대 군인가족들이였으며 깊이 관심하신것도 군인들의 생활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치면 터질듯한 전쟁접경의 위험도 웃음으로 날려보내시며 평범한 군관의 가정까지 찾으시였고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물보장, 전기보장상태 등을 알아보시고는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놓고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는데 대하여 그리도 기뻐하시였다. 잠자리가 뜨뜻하고 식탁이 푸짐해야 군인들이 초소를 자기들의 정든 고향집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군

인생활개선이자 싸움준비라는 유명한 사랑의 명제까지 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고 온 세상이 부럽도록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적대세력들과 날카롭게 대치하고있고 일촉즉발의 첨예한 전쟁접경의 정세가 조성되여있는 최전연, 최전방초소들을 련이어 찾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시찰의 길을 마음속으로 따라걸으며 천만인민은 심장의 웨침을 터뜨리였다.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최전선에 있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운명의 수호자,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절대적믿음이며 든든한 배심이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하여 준엄한 최후결전의 최전방에 서신 위대한 령장의 모습은 천만인민의 무한한 신뢰와 흠모심을 불러일으키며 멸적의 투지와 신심을 백배해주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 조국의 미래를 결사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필승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이것이 적대세력들과의 판가리대결전에 진입한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는 멸적의 웨침이였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단숨에 깔아뭉개며 달려나갈 무적의 철갑대오가 동음을 높이였다. 적의 아성을 단숨에 불바다로 만들 멸적의 기상으로 만장약된 강철포신들과 전략미싸일들이 침략의 무리들을 조준경에 빠짐없이 잡아넣고 발사순간을 기다렸다.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수 없는 강력한 징벌을 안길 결사의 각오를 안고 비행사들과 해병들이 최대의 격동상태에 있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물론 청년학생들도 한손에 총을 들고 정의의 반제항전에 용약 뛰여들어 적대세력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순간을 기다리고있었다.

정의의 조선을 건드리면 천벌을 받는다! 이것이 천추의 한이 맺힌 겨레의 노한 함성이고 하늘이 내리는 응분의 철추이다.

남조선의 《통일뉴스》는 《정전상태소멸과 통일대전선전포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발표로 북미관계에서 정전상태는 소멸되고 조선반도정세는 긴박한 전쟁상태에 진입하였다. 전쟁상태진입은 북이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한다는 뜻이다.

북이 2013년 3월 11일이후 임의의 시각에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해도 그것은 국제법상문제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

화상태를 깨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게 아니라 정전상태가 소멸되여 전쟁상태로 다시 돌아가는것이기때문이다.

지금 북은 림박한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하여 전군, 전민이 군사행동을 취하고있는데 미국과 남조선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있다. 전쟁승패의 예감을 불러오는 극적인 대조가 아닐수 없다.》

또한 인도네시아신문 《씨뿌따르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 누구도 조선의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 한다면 하는 나라이다. 지금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세계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인민이 온갖 적대세력들을 어떻게 징벌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무도한 북침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조선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해버리고 판가리결사전에 돌입한것은 천만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전 인민적결단이고 정의의 선택인것이였다.

이 땅에 정의와 부정의간의 전면대결전이 벌어졌다. 세상에 정의와 진리는 많아도 그 생명력이 다 발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정의와 진리는 오직 힘으로만 담보되여야 한다.

조선과 미국사이의 정치군사적, 사상정신적힘을 총발동한 힘의 대결이 벌어졌다.

세상에 전례없는 이 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이겠는가?

정의는 승리를 위하여 힘을 찾는 법이라고 했다.

시시각각으로 첨예해지는 조선반도의 하루하루는 그 대답을 스스로 내려주고있었다.

3. 최선의 정의의 선택—새로운 전략적로선 제시

력사적인 2013년 3월전원회의

인류전쟁사는 총탄 한발에 의해서도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쯔 페르디난드부부가 보스니아의 싸라예보에서 암살당한 사건이 동기가 되여 발칸에서 터진 전쟁의 불꽃은 급속히 퍼져 유럽의 주요국가들을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리게 하였다.

내외여론은 《끝나지 않은 조선전쟁》이 조선반도를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왔다고 하면서 싸라예보에서의 한발의 총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것처럼 세계대전의 불꽃이 바로 조선반도에서 터질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발발직전의 상황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적인것으로, 국제적인 초점의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운명적인 시각, 온 세계의 이목이

핵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 몰려오는 조선에 집중되는 가운데 2013년 3월 31일 미국의 핵광풍을 드세차게 밀어내며 력사의 봄우뢰가 평양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이날은 우리 공화국과 우리 민족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의미깊은 날이다.

평양에서는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첫째 의정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와 결론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앞에는 날로 가중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당중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게 된다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장내를 뒤흔들었

다. 그이의 력사적선언이 뢰성처럼 높이 울렸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이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였고 혁명발전의 요구였으며 민족번영의 요구였다.

이것은 최선의 정의의 선택이였다. 다시말해 병진로선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야 하며 전쟁억제력이야말로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자위의 보검이라는 진리에 기초한 강철의 령장 **김정은**장군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 정의의 선언이였다.

정녕 새로운 병진로선의 제시는 자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이 강력한 핵억제력의 담보하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장엄한 포성이였다. 멀지 않아 불패의 군사강국의 출현으로 핵렬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것이라는것을 예고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엄숙한 선언이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무한한 격동속에 이 위대한 사변을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였다.

적대세력들에게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억제력으로만이 통할수 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건설을 위해서도 그렇다.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지나온 력사를 분석하시면서 다시금 새기신 신조였다.

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이 강조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야말로 조선이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이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은 나라의 강성번영을 확고히 담보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집요하게 몰아가고있는것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을수 없게 하여 조선인민의 강국건설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한 외신이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해마다 3월과 4월 두달이라는 긴 기간에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은 이 시기가 조선에 있어서 바쁜 농사철이기때문이며 청장년들이 군대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농업전선에 돌릴수 없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까밝힌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신문들이 일명 《군사력과시전략》으로 평한 2013년 미국과 남조선이 벌린 합동군사연습들도 조선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강국건설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 그늘을 던져보려고 획책하였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결국 우리 공화국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군사비를 증강하게 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난관을 조성하며 저들이 취하고있는 제재의 효과를 올리자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미국의 이러한 흉계를 짓부시고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론설위원은 도서 《불가피한 선택》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바 있다.

《핵무기는 초기개발단계에서 투자가 많이 들지만 일단 핵기술을 소유한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다. 북이 일반상용무기생산에 들어가던 비용을 줄이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생산에 집중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자금과 로력을 경제분야에 돌릴수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 북으로 하여금 국방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저애하던 수법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였다. 북은 1999년부터 경제강국건설을 주요목표로 제시하고있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오늘 그것이 한갖 선전제스츄어에 불과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제 경제강국건설은 시간문제일것이다. 확실히 북은 핵무기정치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적절히 활용해나가고있다.》

실로 그랬다.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으면서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는데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인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 공화국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 강철의 담력으로 개척하고 마련해주신 튼튼한 원자력공업이 있으며 무진장한 우라니움자원

이 있다.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면 강위력한 핵무력도 건설하고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 경제강국건설도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과업도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조선은 자연지리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조선의 지정학적위치는 참으로 명당자리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조선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떠도는 긴장하고 불안한 환경으로 하여 경제발전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다. 경제건설은 평화적이고 안정된 환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평화적이고 안정된 환경만 보장된다면 조선은 아마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빠른 경제적장성을 이룩하는 나라로 될것이다.

이에 대해 한 외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평화적이고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는 방도를 핵무력강화에서 찾았다.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규모의 랭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도 많았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는것,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더 크다는것이 조선이 찾은 결론이였다. …

그렇다.

력사와 현실은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건설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전원회의소식은 핵몽둥이를 들고 날뛰던 미국에게 폭탄갈은 철추를 내리고 조선민족의 광활한 앞길을 선언하며 이 땅을 뒤흔들었다.

전원회의소식이 전 세계를 진감하는 속에 남조선의 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련합뉴스》, 《KBS》, 《MBC》, 《세계일보》, 《뉴시스》를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은 《북, 당전원회의에서 경제, 핵무력병진로선 채택》, 《**김정은**시대 국정목표》, 《핵보유의지 재확인》 등으로 보도하였다.

사실상 《핵문제》를 구실로 세계 최대핵보유국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면공세를 가해오고있는 시기에 세계정치군사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핵무력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적 로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는것은 누구나 해낼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감이나 지략에 앞서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의 문제이며 값비싼 희생과 천신만고를 각오해야 하는 길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정녕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주체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갈 철석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중대결단으로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올 일대 사변이였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여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갈데 대한 방침에는 총적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성취하여 우리 국가를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려는 억척불변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었다.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강국전렬에 올려세우는것,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총적구상과 정치적결단이 빛발치고있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세기적인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새시대를 기어이 열어놓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단호한 결단은 완벽한 실천으로 줄기차게 이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어오신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뿌듯한 희열의 순간들이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5년간의 국방력발전로정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조국과 민족, 후대들앞

에 더없이 떳떳하고 대단히 영광스러우며 보람넘친 애국의 길, 위대한 승리의 려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2018년 4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 국가핵무력완성을 긍지높이 온 나라에 선언하시게 되는 력사적사변을 맞게 된다.

그러나 아직 적대세력들은 물론 그 누구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짜놓으신 이와 같은 최고의 속도로 질주하게 될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완성의 시간표를 알수 없었다.

자위적전쟁억제력-그 법적공고화와 조치들

우리의 전쟁억제력만 든든하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마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으로 마련된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무릇 국가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공포하고 국가권력으로 그 준수를 담보하는 일반의무적인 행동준칙의 총체를 일러 법이라고 한다. 국가가 정권을 쥔 계급의 의사를 대변하여 사회성원들의 행동준칙으로 제시한것이 바로 법인것이다. 법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며 그

준수집행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나가는것을 우리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신데 이어 핵무력건설의 리념적기초와 그 법적담보도 완전무결하게 갖추도록 하시였다.

주체102(2013)년 4월 1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들을 법적으로 고착하고 실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회의에서는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음의 법령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가이다.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전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

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드디여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 나라의 국책으로 법화되는 력사적인 시기를 맞은것이다.

만약 법적으로 고착된 공화국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두고 시비하거나 흥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공화국의 존엄을 해치고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될것이다.

법령에는 그 누가 조선을 감히 침략하거나 공격하려 한다면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불굴의 의지가 서리발총창처럼 비껴있다.

또한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협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전쟁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대담한 공격정신이 맥박치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평화애호적립장이 담겨져있다.

자위적전쟁억제력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의 채택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게 한 력사적장거였으며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공화국에서는 전쟁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당면하여 우선 현존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였다.

련이어 취해지는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에 세계는 또다시 들끓었다.

온 미국땅이 들쑤셔놓은 개미굴이 되여버렸다.

《극도로 걱정스럽다.》,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 등의 탄식조가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까지 《현 사태가 미쏘대

결이 최극단에까지 갔던 까리브해위기때와 비슷하다.》, 《북의 무력시위가 단순한 엄포용으로 그칠것같지 않다.》, 《실지로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멈출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갔다.

미국의 한 방송은 《미국은 가장 강한 적, 가장 헐치 않은 그런 정치실체와 직접 대치하고있다는 그런 각도에서 북조선과 접촉하고 대화하며 거래를 하여야 할것이다.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인민에 대한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있는 북조선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홀시하여서는 안되며 잠시라도 주의를 늦추어서는 안될 특수한 실체인것이다.

미행정부의 모든 사고와 사색은 마땅히 북조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돌려져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21세기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가 들어있기때문이다.》라고 랭철하게 진단했다.

한편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대화타령을 늘어놓았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4월 11일 유엔사무총장과의 대화를 빌어 《지금은 온도를 낮출 때》라고 말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무슨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사태수습의사를 밝혔다.

미국무장관 케리도 12일 남조선을 행각하여 《오바마대통령은 몇개의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느니, 《북조

선이 진정성을 보이면 9.19합의를 리행하겠다.》느니 하는 추파를 던지며 대가에 따른 그 무슨 보상을 운운하였다.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데 습관된 남조선당국도 미국의 대화제의를 제꺽 되받아넘겼다. 4월 11일 남조선당국자는 청와대에서 있은 당시 《새누리당》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북과 대화할것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대북성명》을 발표하여 《북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는가 하면 청와대핵심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대북성명》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공식대화제의라고 하였다.

조선반도정세소식이 여러 나라들의 언론, 보도들에서 특보감으로 편집되는 속에 대화제의는 만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너도나도 대화제의를 특별뉴스로 보도하였으며 그 진의도를 파악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신들은 왜? 혹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결에서 대화로 넘어가려는거지?》

《정말 미국은 북조선과 대화를 원하는걸가?》

《이제 북조선이 미국의 대화제의를 수용하기만 하면 전쟁위기는 문득 사라진 겨울처럼 가셔지고 평화의 따뜻한 봄이 이 땅에 찾아들겠는가?》

하지만 현상 그자체가 본질은 아닌것이다. 대화제의는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미국이 꾸며낸 하나의 기만극이였다.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조미대결이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의 후퇴이고 항복이였다.

조선은 이미 2013년 봄에 이 대결의 정점을 내다보았고 그 목표까지로 미국을 회초리로 때리며 몰아갔던것이다. 미국은 결국 조선이 치는 북장단에 춤을 추어준 격이 되였다.

2월 12일의 지하핵시험, 3월의 병진로선, 4월의 핵보유국법령채택, 실제적인 전쟁억제력강화조치들…

조선의 지위와 힘이 달라졌다. 조선은 기초적인 전쟁억제력시험이 아니라 그 확대강화를 위한 단계에 올라섰다. 조선의 전쟁억제력이 이제는 나라의 국책으로 법화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나가는것이 전략적로선으로 엄숙히 선포되였다.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의 선택과 로선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세계여론이 평하듯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조선이 취한 조치들은 미국과는 더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조선의 힘, 조선의 노력으로 나라의 자주권도 지키고 경제강국건설도 다그쳐야 한다는 결론에 따른 정당한 선택》이였다.

병진의 드센 포성은 동방에 높이 솟은 **김정은**조선이 강성번영의 세기적인 꿈을 마음먹은대로 실현해나가는 전면적인 주로에 들어섰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병진로선이 《절대불가능》한것이라고 악담질을 해댔고 북이 처한 엄혹한 환경에서 병진은 되지도 않을 《헛된 구상》이라고 하였지만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편으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고 군종, 병종부대들의 전투력을 세계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탄, 수소탄시험, 중, 장거리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 등을 단행하여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어김없이 제시간내에 달성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신다.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앞으로의 일이였다.

적대세력들과 온 세계는 이 경이적인 사변들을 공포와 경탄, 놀라움속에 하염없이 지켜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정은조선은 승리를 향하여 이렇게 력사의 큰걸음을 기세차게 내짚었다.

☆ 민족사의 피의 교훈

사대가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봉건왕조말기의 현실에 대해 어느한 소설가는 이렇게 서술한바 있다.

《…저 해양너머의 식민주의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제멋대로 별명지어 <동방의 은둔국>이라 불러오는 이

나라—조선의 밤은 길었다.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백년의 대계를 세울 때는 바로 이때련만, 이 나라 량반님네들의 잠은 좀처럼 깰줄을 모른다.

대체 어찌할 작정인가? 그냥 잔다. 세상모르고 그냥 자고들만 있다. …》

제정신을 가지고 국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대국들의 비위를 맞추며 정사를 하다나니 끝내 국권상실의 비극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불운을 통탄한 글이다.

흔히 력사를 가리켜 시대의 증거물 혹은 과거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한다.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은 거기서 어제의 교훈을 찾고 래일을 관망하기 위해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수난을 겪어왔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민족사의 교훈과 조선혁명의 요구와 특수성으로부터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적이고 사활적인 중대국사로 되고있습니다.》

거슬러보면 우리 나라는 외세가 몰아오는 끊임없는 전란의 풍운속에 시달려왔다. 고대로부터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때에도 임진왜란 등 전쟁의 참화는 그치지 않았다.

19세기말—20세기초에는 우리 나라 땅에서 남이 벌린 청일, 로일전쟁이라는 두차례의 참화를 겪었다.

조선에 대한 외세의 탐욕이 우리 나라에 전쟁을 몰아온 객관적요인이였다면 보다 근본적이며 주관적인 요인은 당시 우리 나라가 힘이 약한데 있었다.

남들은 증기기관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때에조차 하늘소를 타고 옛시나 읊조리던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이 국호를 고치기도 했지만 국력은 이름이나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였다.

결국 총칼로 무장한 침략자들이 달려들어 강도적인 《조약》을 날조해내고 온 강토를 집어삼켜도 그 어디에 항변 한마디 변변히 할수 없었던 우리 민족이였다.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고 대들보가 무너지면 서까래도 허물어진다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면 그 성원들의 운명도 평온할수 없다.

고려중기의 관료 김부식의 경우 그의 머리속에는 사대사상이 깊숙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는 《삼국사기》를 서술하면서 큰 나라를 성심성의로 섬기면 나라가 흥하고 큰 나라에 대하여 불손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그의 사대의존의 죄악상은 후세에 큰 교훈을 남기였다.

고려의 왕권을 찬탈한 리성계 또한 저들의 건국리념으로 《사대립국》이라는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나라세움의 근본이 사대라는것을 의미하며 사대로서 나라의 근본을 삼는다

는것은 사대주의적인 통치원리를 말하는것이다.

야사에 의하면 당시 개성지방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역신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리성계를 증오하여 뒤간을 《서각(리성계가 고려의 왕자리를 빼앗고 자리잡고있던 서쪽채)》이라고 부르며 저주하였으며 근래까지도 개성사람들은 설명절에 음식을 만들 때 떡을 나무칼로 잘라서 00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리성계의 목을 자르는것》이라고 전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말 통치자들 역시 사대주의, 대국추종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 민족사를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들은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황궁을 지키고 래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식의 주체없는 통치전략으로 민족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한페지를 장식하였다.

사대를 《민족보존의 무기》로 삼아야만 했던 수난의 력사, 변변한 화승총조차 없어 주권을 빼앗기고 국호마저 지킬수 없었던 지나온 망국의 력사의 뼈저린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워야 한다는것이다. 자기의것, 제힘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한 력사가는 《19세기말엽 조선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뒤이어 로일전쟁이 일어났다. 조선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조선민족에게

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전쟁이 바로 조선에서 일어난것은 무엇때문인가.

조선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점한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조선은 오래전부터 렬강들의 각축전장이 되였다. 하지만 조선이 대국들의 전쟁터로 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 저들끼리 해야 할 전쟁도 조선에서 제 마음대로 벌렸겠는가. 바로 조선에 힘이 없었기때문이다.》라고 썼다.

이 글을 통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것이 무엇인가.

조선반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정치구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어제오늘에 와서 공인된 문제가 아니라는것이다.

20세기초엽 일제가 우리 나라를 침략한것도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아시아지배를 실현해보려는데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것도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중요성때문이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인것이다.

미국도서 《비사 조선전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조선은 수세기동안 전략적십자로에 있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조선은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일본에 들이댄 권총이였으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에 의한 중국침략의 력사적교두보였으며 로씨야인들에게 있어서는 울라지보스또크에 대한 위협이였으며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확장을 봉쇄말살하는 봉쇄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였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쏘미랭전시기나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조선반도를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한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로, 아시아라는 《큰 고기덩이》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보고있다.

벌써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된 직후 미극동군 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선의 전 지역을 정복하는 경우 《우리들은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끊어버리고…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 지역을 지배할수가 있을것이다.》고 하였다.

바로 그렇기에 조선반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에 의한 전쟁이 발발했고 반세기이상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한번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셔본적이 없었다. 미국의 조선에 대한 지배주의적이고 패권적인 핵만능의 정책과 핵위협공갈은 수십년간 계속되였다.

언제인가 로씨야의 작가 라브렌찌 구르쥐예브는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봉쇄에 대해 이렇게 피력하였다.

《미국은 군사적위협과 공갈로써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히틀러강도배들이 레닌그라드에 가한것과 같은 봉쇄를 들이대였다. 전쟁사가들은 900일간의 레닌그라드에 대한 봉쇄를 가혹성의 대명사로 서술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봉쇄는 그보다 더 엄혹한 것이였다. 그것은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였고 한두해가

아니라 60여년간, 2만여일간의 봉쇄였으며 현대적무기정도가 아니라 열핵무력의 봉쇄였고 두세방면으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사면팔방의 봉쇄였다.》

실지 그렇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의 핵위협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일본만을 미국으로부터 원자탄세례를 받은 유일한 나라로 알고있을것이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한 원자탄으로 하여 일제의 징용, 징병에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억울한 핵피해를 당하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남조선의 원폭피해자협회는 조선인원자탄피해자총수가 약 7만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약 4만명에 달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미국에 의하여 최초의 핵참화를 입은 직접적피해자중의 하나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원자탄공갈을 하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

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뇌까리였다.

이때 인천앞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항공모함에는 은밀히 핵무기가 배비되여있었으며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19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교섭보다 행동이 제일》이라고 떠벌이였으며 다음해에는 조선에서 《원자탄사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조선에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자면 원자탄을 사용하여야 할것이다.》는 폭언도 늘어놓았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리별을 당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많은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 가슴아픈 민족적비극을 초래한 장본인,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전후에도 계속되였다.

전후에 조선인민은 전쟁으로 파괴된 모든것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교훈을 찾을 대신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다.

특히 미국의 정객들은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핵전쟁준비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핵전시장으로 만들어왔으며 끊임없이 핵전쟁을 획책해왔다.

1954년 1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량보복계획》을 공개한 미국은 1957년 7월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1958년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실전배비하는것으로 시작된 미국의 남조선 핵기지화책동은 지난 수십년간 체계적으로 강화되였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핵폭탄, 핵포탄, 핵탄두, 핵지뢰, 핵배낭에 중성자탄 등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까지 갖춘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북침핵전초기지로 전락되였다.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단을 전술핵무장을 갖춘 《펜토믹》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오네스트죤》핵미싸일대대, 280㎜원자포대대를 끌어들였다. 미공군 588전술유도탄대대를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미군 4유도탄사령부도 창설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남조선에서 《방어》와 《년례적》이라는 간판밑에 각종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이 과정에 초대형핵항공모함과 이지스순양함, 핵잠수함 등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항시적으로 끌어들였다.

로씨야의 한 군사전문가가 《사실상 구실이 없어 조선반도

수역에 들어오지 못하고있는것이 미국의 해상핵전략타격전력이다.》라고 한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것이다.

이러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은 한개 지역을 핵으로 초토화시키고도 남는 강력한 핵무기들을 탑재하고있다.

비밀해제된 미국방성의 검열보고서에 의하면 미핵잠수함에 탑재된 《트라이든트》전략핵미싸일은 발사명령이 내린 후 13분이면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해마다 핵폭탄적재가 가능한 전투폭격기들을 순환배치형태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증대되는 핵위협과 핵공격목표로하여 조선반도에는 세계최초의 열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여있다.

열핵전쟁이 오늘 일어나느냐 아니면 래일 일어나느냐 하는 긴박한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 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은 누구이며 또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국제정치무대에서 론의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여론들은 핵전쟁의 기로에 선 조선반도의 중대사태가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제나름의 평들을 하고있다.

매개 사실, 사태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본질이 배태되여있다. 사실과 현상에서 본질을 옳바로 보는것이 중요하다. 만약 표면현상, 더우기 허위로 위장된 현상만 보고 그 본질을 못본다면 그것은 저능아적사고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결국 조선반도핵위기의 진상은 조선문제의 본질파악에 귀착된다.

미국의 본색은 침략자이며 남조선은 그에 강점된 식민지이다. 따라서 조선문제는 본질상 우리 공화국과 침략자인 미국과의 대결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공화국을 침략하고 압록강, 두만강일대를 교두보로 차지하여 중국, 로씨야를 제압하고 유라시아대륙의 광활한 지역을 한손아귀에 거머쥐자는것이 미국정책작성자들의 전략적기도이다.

미국의 책략가들에게 있어서 조선반도는 유라시아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만 필요할뿐이다.

애당초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지대로 된지 오랬을것이다.

지구를 수십번 재더미로 만들고도 남을 핵무기들이 항시 공화국을 노리고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공백지대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은 세계최대의 핵대국이고 핵전쟁광신자인 반면에 타방은 비핵국가라면 높아지는것은 핵전쟁위험뿐이다.

조선은 미국의 증대되는 핵위협과 모험적인 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

기 위해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데로 나아갔다.

총적으로 미국의 증대되는 핵위협과 핵공격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감행되는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책동은 공화국을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떠미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길은 우리 민족사의 피의 교훈과 오늘의 현실이 새겨준 진리이고 절대법칙이다. 조선의 전쟁억제력보유의 불가피성과 필연성, 그 정당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 국제정치평론가의 주장은 참으로 론리적, 현실적타당성이 있다.

그들은 근 70년동안 미국의 핵전쟁위협앞에 서있다. 미국은 끊임없는 정치적도발과 경제적제재와 함께 《평양점령》을 위한 살인적인 대규모핵전쟁연습을 해마다, 달마다 그들의 코앞에서 벌려놓고있다. 그러니 북의 민중이 장구한 세월 그것을 보며 무슨 생각인들 안하였겠는가. 남들처럼 전쟁위협이 없는 안정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싶은 생각은 또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그리고 화약내 풍기는 핵전쟁연습을 일년열두달 코앞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결심을 굳혔겠는가.

그 결심이 곧 자위적핵억제력보유갈망으로 승화되였고 마침내 병진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되였다. 침략자들에게 먹히우지 않고 짓밟히지 않으며 자기의 삶의 터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인것이다. …

그렇다.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는 나라 조선이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고 정의였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념원과 그것을 사용할 권리는 론리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대응일뿐이다.

현실은 조선으로 하여금 사소한 자만과 답보도 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봐야 합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신것 아니겠는가.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사의 피의 교훈에서 찾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철의 의지, 자주적존엄을 위한 조선의 정의의 선택이였다.

제 2 장

세계적인 강국전렬에 솟구쳐오르다

1. 민족사적특대사변을 안아오시여

1월의 민족사적대사변

장쾌한 뢰성이 누리를 진감시켰다.

주체105(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세계의 이목이 조선을 주시하고있는 속에 공화국에서 중대보도가 있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각 12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소리높이 울려퍼졌다.

《…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수소탄의 기술적제원들이 정확하다는것을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시험용수소탄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였다.

…

이번에 우리 공화국이 쟁취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으로 된다.

…》

삽시에 온 나라가 격정과 환희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폭음은 사회주의조선의 밝고 창창한 래일을 예고하는 장엄한 태동마냥 이 행성을 뒤흔들어놓았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즈음하여 평양의 하늘가에 축포의 꽃보라가 창공을 물들이며 힘차게 날아올랐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이라면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얼싸안고 울고웃으며 이날의 민족사적대경사를 축복하였다.

얼마나 소중한 조국의 재부인가.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낳

은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수소탄!

그것은 하늘에 솟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의 높이이다. 그것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렬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며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다.

민족사적인 대사변을 두고 기뻐하는것이 어찌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사는 천만인민이라고만 하랴.

이날의 대경사를 우리의 장구한 민족사, 5천년이 환호하였다.

이끼푸른 옛 성벽도, 고색창연한 문루도 반침략투쟁에서 용맹떨치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되찾는 길에 파란많은 한생을 바친 수천수만의 렬사들과 의사들, 지사들의 령혼을 비껴담고 이날의 력사적대장거를 찬탄하는듯싶었다.

우리 조국이 보유하게 된 수소탄, 그것은 주체조선의 힘이 비할바없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주먹이 그 누구도 막을수 없이 드세여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실 우리 공화국과 같이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책동과 사람들의 생존권까지 말살하려는 가혹한 제재와 압박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조건에서 수소탄까지 만든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허나 가는 길이 그 아무리 멀고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가로막아도,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담보하자고 해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자고 하여도 죽으나사나

수소탄을 보유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비참했던 식민지노예의 설음을 안고 고향을 빼앗기고 타향에서 방황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숙원이였고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경제봉쇄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살아야만 하였던 우리 공화국의 수십년력사의 요청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존엄을 위하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실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기어이 핵으로 끝장내자, 우리의 핵무기를 없애보려고 미쳐날뛰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에게 그보다 비할바없이 위력한 열핵무기로 철추를 내리자, 바로 이것이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그 어떤 역경도 맞받아 뚫고나가시는 천하제일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으며 우리의 핵무력은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밝혀주신 때로부터 핵무력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적인 핵무력건설의 토대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공화국의

품에서 자라난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는한 국가핵무력건설은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이나 지원도 없이 오직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험난한 초행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수소탄제작을 위하여 몸소 그 개발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안겨주시며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어떤 때에는 자정이 훨씬 지난 밤에도 전화로 개발정형을 알아보시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할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우리 식으로 수소탄을 개발할데 대한 묘안과 묘책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자애로운 손길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백절불굴의 자강력을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명령을 신념으로 새겨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애국의 초침을 당의 숨결에 맞추어 투쟁하였다.

그들은 병진의 진로따라 가는 길에는 시련도 영광이고 기쁨도 영광이라는 애국의 한마음, 원수님의 그 믿음에 기어이 성공의 보고를 드리려는 애국의 숨결로 불같이 살며 모든 열정을 수소탄연구에 아낌없이 바쳤다.

수소탄은 드디여 시험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

김 정 은

2015. 12. 15》

우리 공화국을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억척불변의 담력과 배짱이 넘쳐나는 친필서한을 받아안은 국방부문의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수소탄시험준비를 완료하였다.

수소탄시험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소탄시험을 단행할데 대한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였다.

《당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김 정 은

2016. 1. 3》

TV와 출판물을 통하여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며 우리 인민은 미국의 패배를 선언하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알리는 문건을 비준하시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과 자주의 보검으로 제국주의반동들을 쥐락펴락하시던 위대한 천출명장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끝끝내 우리의 과학자들은 성공의 탑에 올라섰다.

수천만℃의 고온과 엄청난 고압기술을 자기식으로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핵융합반응을 드디여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선은 간단치 않은 나라이며 상상할수 없는 힘을 품고있는 강대국임을 세상이 다 알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우리 인민의 민족사적숙원을 하루빨리 이룩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로고는 깊이 묻어두시고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을 안아오는데 기여한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소탄개발자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그들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들에게 당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나오시여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축하연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사변은 우리 인민에게 무변광대한 우주의 신비함을 다 모아도 비길수 없는 큰 힘을 안겨주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동지들이 바친 고심어린 탐구와 애국충정의 땀방울에 의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나라는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주체조선의 영광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또다시 과시한 력사적장거로 되였다.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미국의 백악관과 국방성에 있어서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어떤 종류의 수소탄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는지 상상도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과학기술적으로 볼 때 원자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6번 이상의 시험을 해야 한다는것이 기존공식이다.

그러나 조선은 핵시험 4번째만에, 그것도 고도로 정밀화된 소형수소탄을 시험하였다.

애초에 공화국을 보는 시각이 삐뚤어진 미국은 조선의 수소탄이 소형화되였다는것을 굳이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공화국의 수소탄성공도 문제이지만 소형화된 수소탄은 미국에 있어 더더욱 악몽이였기때문이였다.

일반적으로 운반체앞에 설치되는 탄두의 질량이 1kg 증가하면 비행거리에서 40㎞를 손해본다고 한다.

따라서 핵무기를 소형화하면 할수록 운반체들의 사거리를 늘일수 있게 되여있다.

그러니 탄도미싸일에 장착할수 있는 소형수소탄을 만들어냈다는 공화국의 립장을 인정하는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전 미국방장관이였던 페리의 말을 통해서도 핵탄두의 소형화가 미국에 주는 두려움의 세기를 가늠할수 있다.

페리는 1월 11일 워싱톤에서 열린 《전 미국방장관 4명 초청 미－중관계 화상토론》에 참가하여 《북조선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 미싸일에 탑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있다.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과학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헥커도 《시험소식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수소탄이 소형화, 경량화된것이다. 조선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속화되는것이 제일 두려운 문제이

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여 미국은 조선의 소형화된 수소탄시험성공을 애써 부인하였다.

엄연한 현실은 부인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내에서는 차츰 조선의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인정하는 기류가 핵전문가들속에서 지어 미국방성에서도 흐르기 시작하였다.

전파방지교육쎈터(NPEC)의 고문과 상임리사는 《월 스트리트져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조선의 수소탄개발가능성을 일축하는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북조선의 기술인력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수 있을만큼 천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라고 하면서 전 국제원자력기구 감독관의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하였다.

《만일 내가 홀로 사막에 남았을 때 생존을 위해 단 한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북조선의 기술자를 데려가겠다.》

이외에도 《북조선핵문제의 권위자》로 알려진 미국 미들버리국제문제연구소 전파방지연구쎈터 소장 제프리 루이스, 미국 죤스홉킨스종합대학 연구원 조엘 위트, 미국 싸우던 캘리포니아종합대학 미중관계연구소의 조선문제전문가 마이크 치노이 등 미국과 남조선의 핵전문가들이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을 부정하는것은 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수소탄시험성공을 인정해나섰다.

세계의 많은 나라 통신방송도 조선의 수소탄시험은 이전의

3차례 지하핵시험과는 달리 핵폭발의 위력이 셀뿐 아니라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단행되였다, 이것은 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력사적사변인 동시에 조선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선진국전렬에 당당히 내세운 놀라운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좋든싫든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리고말았다.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함으로써 조선은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와 우리 인민의 억만년미래를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로씨야의 한 정치분석가는 《평양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가지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세력구도에서 커다란 변화로 된다. 아시아태평양에 힘이 대등한 지역렬강이 출현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로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는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인류최강의 힘을 쥐고나섰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세계정치질서에 통구멍을 내고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세계에 몇 안되는 수소탄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승리의 월계관은 바란다고 하여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공화국에서의 첫 수소탄시험 대성공, 이는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과시이다.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천하를 굽어보시며 나라와 민족을 통일강국의 미래에로 이끌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주적신념과 드팀없는 의지가 안아온 장쾌한 승리의 선언이다.

우리 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하늘에 닿은 1월 6일.

정녕 이날은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살려는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 이루어진 사변적인 날이였으며 평화의 맑은 하늘아래 강성번영하는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꽃펴나게 된 력사의 날이였다.

세계를 진감시킨 반향의 목소리

폭발력이 크면 진동도 크다. 그것은 분명 대륙을 울리는 력사의 진동이였다.

현세기에 있어 온 행성이 이처럼 한꺼번에 끓어번진적이 있었던가.

우선 온 세계가 오래동안 조선의 수소탄충격에 빠져들었다.

영국의 한 방송은 《사실 **김정은**령도자는 지난해 12월 9일 조선의 수소탄보유에 대해 선언하였다.

그때 온 세계가 조선의 선언에 관심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핵무기발전에 대해 어지간히 알고있던 미국을 비롯한 핵렬강들이 그것은 선전일뿐이라고 했기때문에 세계가 그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거기에다 조선이 2013년에 제3차 핵시험을 진행하고 이렇게 빨리 수소탄시험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탄시험을 단행함으로써 새해 첫시작부터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조선에 집중시켰다.》고 평했다.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이후 미국의 인터네트망에서 ABC 방송프로그람에 출현한 미국소녀의 말이 큰 화제거리가 되였다고 한다.

《북조선이 마침내 수소탄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온 세계가 흥분하고 축하메쎄지를 보내고있는데 북조선에 축하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북조선이 마침내 수소탄을 만들 때가 된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이 말을 비롯하여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대한 공감과 지지,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파키스탄TV방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첫 수소탄시험 성공, 수소탄보유국 세계에 선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특별중대보도장면들을 30분간격으로 반복방영하였으며 이 나라 신문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정은**령도자 조선의 핵능력강화에 박차》 등의 제목으로 젊으신 **김정은**령도자께서 수소탄시험을 통하여 정책작성과 그 실현에서 단호한 결심과 결단성있는 지도력을 과시하였다, 조선은 이번 성공으로 미국본토에 타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의 핵무기개발에서 크게 도약하였다고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였다.

조선의 수소탄충격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종을 울린 극적인 사변이였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목소리들중에서 주목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강인담대한 배짱에 대한 칭송의 분출이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는 영상사진 문헌과 친필을 정중히 모시고 특대소식으로 전하면서 조선의 수소탄시험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된데 대하여 특별히 력점을 찍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시험의 전 과정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김정은**령도자의 높은 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였다.

언론들은 또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고 핵을 성공시켜 세계를 놀래우시였다면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수소탄을 개발하여 세계를 놀래우시였다.》, 《**김정은**령도자는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형수소탄시험을 강행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 떠올랐다.》고 하였다.

어느한 나라의 군부고위인물은 이렇게 소리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의 수소탄시험성공은 **김정은**령도자의 한다면 하는 담력과 배짱, 미국에 련속 강타를 안기는 조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세계에 보여준 대장거이다. 외국의 지원도 없이 수소탄까지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조선이야말로 진짜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다.》

파키스탄신문 《돈》은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핵능력강화에 박차》라는 글에서 《젊으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념원이였던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정책

과 그 실현에서 단호한 결심과 결단성있는 지도력을 과시했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의 한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격찬하였다.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해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했던 미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조선에 싸움을 건다는것은 자멸행위나 다름바없다. 더우기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선대수령의 령활한 군사적지략과 기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반미전면대결전을 이끌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그 어떤 군사적 모험도 자기 나라를 종국적멸망에로 몰아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세계 진보적인사들은 조선의 수소탄시험의 성공은 **김정은**령도자의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고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해가시는 **김정은**령도자는 진정한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세계정의와 량심은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은 조선인민의 합법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천만번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라는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 뗄레쑤르TV방송은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조선을 위협하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미국과 맞서있는 조선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

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라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탄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에 대하여 시비질하는것은 강도적인 론리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의 웨브싸이트 《루쓰까야 쁘라우다》에 《자위권은 시비할수 없다》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서방나라들이 조선의 수소탄시험이 이웃나라들에 <위협>으로 되고 지역과 세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지난 수십년간 다른 나라를 침략한적도 없고 테로분자들을 지원하지도 않았다. 남조선과의 관계정상화방도까지 항시적으로 모색하면서 아주 적중하면서도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때로부터 이 나라의 대외정책이 변화되였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핵을 보유하였든 보유하지 않았든 조선이 이웃나라들에 <위협>을 준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것이다.》

수많은 인사들과 단체, 신문, 인터네트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현재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으며 조선의 수소탄보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필연적산물이라고 하였다.

진보적인류와 함께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수소탄보유로 더욱 커진 공화국의 힘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서도 긍지높이 찬양하였다.

카나다와 미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사는 해외동포들은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공화국이 핵강국의 전렬에 섰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

《세계여, 위대한 힘을 가진 조선을 알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조국에 감사를 드린다》

…

이것은 수소탄시험성공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에 대한 격동된 심정의 토로였고 긍지높은 찬양이였다.

《민족통신》에 실린 글 《도대체 수소탄시험성공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아래와 같이 썼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소형화시험 완전성공.

놀랍다. 흥분을 감출수가 없다. 조선민족 5천년력사에 오늘과 같은 세계를 놀라게 할 수소탄의 힘을 가져본적이 있었는가.

영광스러운 우리 조선민족의 기개와 열정, 조선의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노력한 보람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이제부터 조선의 핵과 수소탄의 그늘아래 남쪽의 안보도,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도 조선이 튼튼하게 지켜주게 되였다. 우리 조선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예들이라면 조선의 수소탄보유에 감격과 흥분, 기쁨으로 마지않는 사람들은 없을것이다.

나라에 힘이 없어 조공을 바쳐야 했고 외세의 침입에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력사속에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죽어가야 했는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강대국에 짓밟히고 얼마나 한많은 삶을 살아왔는가. 이제야 선조들도 편히 눈을 감을수 있고 고이 영면을 할수 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소탄시험 대성공,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끓고있다.》

해외동포사회의 언론들은 수소탄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다는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다, 조선의 핵과 수소탄은 다른 나라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개발된 수소탄이며 엄격하게 말해 핵융합탄이고 원자탄보다 더 위력적인 최첨단핵탄

이다, 이로써 조선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해외동포들은 공화국의 수소탄보유의 정당성과 그것이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민족사적의의에 대하여 분석하는 글들도 내놓았다.

한 재미동포기자는 《수소폭탄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한다》라는 글에서 《북은 지금도 명확하게 밝히고있다. 한결같이 북미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 동해안과 서해안에 항공모함을 비롯해 최신무기를 가지고 전쟁훈련을 하면서 북과 대화를 거절하고있다. 한쪽은 대화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대화를 거절하고있다. 그러면서 대화거절당사자인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대화거절을 잘했다고 한다.

…북이 만약 핵무기가 없었다면 이라크처럼 벌써 전쟁이 일어났을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수소폭탄이 없다면 영원히 전쟁을 막을수 없을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북이 보유하게 된 수소폭탄은 우리 민족에게 다가올 전쟁참화의 고통을 막아내고 평화를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된것이다.

수소폭탄은 이제 민족의 미래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된것이며 우리 민족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축복이라 할수 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공화국의 수소탄이 온 겨레를 위한 《겨레의 핵》, 《민족의 자산》으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의 수소탄보유

의 평화적성격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사적 의의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어느한 해외동포론평가는 자기의 글에서 《국내외 동포들이여, 북이 개발한 수소탄을 겨레의 핵으로, 민족의 자산으로 공유하자고 호소하고싶다. 남북이 이것을 공유하여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방어력이 되여야 한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한 재미동포정치학자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평화를 확고히 담보한 대장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핵으로 위협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 아니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다. 더우기 북의 핵은 동족 즉 이남을 겨냥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조선을 침략하려는 외세를 겨냥한것이다. 따라서 북의 수소탄보유로 하여 남조선사람들도 평화의 덕을 더욱 누리게 되였다. 과시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보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력사는 세계평화수호에 기여한 조선의 거대한 업적을 자기의 갈피에 금문자로 새겨넣을것이며 후세력사가들은 세계전쟁사가 아니라 조선에 의해 보장되는 세계평화사만을 저술하는 새시대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것이다.》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진보언론과 해외동포들은 공화국의 수소탄보유로 하여 미국의 종국적파멸은 시간문제라고 예평하였다.

한 해외동포는 《북 수소탄 그 정치공학적의미》라는 글에서 《북의 수소탄은 단순히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 중수소의 핵융합련쇄반응에서 나오는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무기가 아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신념과 의지, 사랑과 증오를 에네르기로 하여 제조한 력사적교훈과 총화가 함축된 정의의 무기이다.

…

만약 미국이 오판하여 군사적카드를 꺼내든다면 수소탄보유국인 북은 이미 천명한대로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에 무자비한 분노를 재워 아메리카제국을 불바다속에 처넣을것이다.》라고 썼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는 《량자택일의 운명에 처한 미국》,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조국에 감사를 드린다》 등의 글들에서 공화국이 이제는 수소탄까지 틀어쥐였으니 미국의 핵전쟁야망은 물거품이 되였으며 이것은 민족과 세계인류의 평화를 위한 민족사적, 세계사적사변이라고 하였다.

한 해외동포는 《조선을 알라 그리고 우러러보라》라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돌이켜보면 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간고한 길을 걸어왔던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협과 공갈, 끈질긴 방해와 악랄한 제재를 짓부시며 자강의 힘으로 전진해온 북이

기에 마침내 수소탄의 보검을 틀어쥔 핵강국의 전렬에 올라선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조선은 제국주의핵렬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온 원천은 무엇이겠는가.

단언하건대 오늘의 북의 모든 기적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북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수소탄보유국으로 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그날 발표한 담화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로 이룩한 성공!》에서 이렇게 썼다.

《첨단군사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여 나라의 군력을 철통같이 다지시였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우리는 앞으로도 강력한 군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해외동포들은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시여 반제반미대결전의 련전련승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결의해나섰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 조국은 2016년 한해동안 련속 전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3월의 핵탄두실물공개, 4월에 진행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의 대성공, 6월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미싸일 《화성-10》의 시험발사 성공,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검열하기 위하여 7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미싸일발사훈련, 8월에 있은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성공, 9월의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폭발시험 등 달에 달마다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주체적핵공격능력의 과시로 하여 온 행성은 벅적 끓고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한세기전이나 오늘이나 민족도 그 민족이고 땅도 그 땅이다.

그러나 나라의 권위와 민족의 존엄은 그때와 대비조차 할수없이 솟구쳐올랐다.

우리 겨레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가슴뿌듯이 절감하던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두고두고 길이 추억할것이다.

2.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3.18혁명》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근본적전환이 일어난 특기할 해로 력사에 깊이 아로새겨진 2017년의 나날 국가핵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할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지던 구호가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이 구호를 맨 앞장에서 선창하시며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 서슴없이 나서시던 그이의 눈물겨운 헌신의 낮과 밤들은 과연 그 얼마였던가.

주체106(2017)년 1월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데 대하여 공식선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자위적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시기 위하여 불같은 헌신과 끝없는 로고를 다 바쳐가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새형의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

의 발동기들보다 동작믿음성과 추진력이 훨씬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함으로써 국방공업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전략무기보유를 위한 우리식 개발창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대출력발동기제작이였다.

발동기의 출력이 높은것만큼 미싸일이 탄두를 싣고 더 먼거리에로 비행할수 있다는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미싸일의 심장부라고 하는 발동기는 어느 나라나다 기존의 기술과 견본을 구걸하거나 모방하여 만들어왔으며 그렇게 하는것이 하나의 굳어진 관례로 되고있었다. 세계가 도달한 첨단기술을 모방하여 만들어내는것도 대단한것으로 보고있었다.

이런 첨단과학의 복합체인 미싸일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창조한다는것은 아직 세계미싸일분야의 어느 전문가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속에서 리상으로 그려본적은 있다고 하지만 감히 엄두는 낼수 없는것이였다.

견본모방이 아니라 우리 식의 개발창조로 제국주의의 폭제의 도구를 압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출력발동기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할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출력발동기의 연구방향을 가르쳐

주시였을뿐 아니라 때로는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국방과학자들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시험현장에서 실패의 원인도 함께 찾으시며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대업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한 높이에서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웅지를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결심에 숨결과 박동을 맞추며 간고한 투쟁의 길을 줄기차게 달음쳐왔다.

한 민족의 생존권, 발전권마저 말살하려는 사상최악의 압살과 제재속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남을 쳐다보았더라면, 견본이나 모방주의에 빠져있었더라면 한치도 내짚을수 없었던 초행길이였다.

이 나날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 현명한 령도로 하여 마침내 미싸일발전력사상 처음으로 우리식 미싸일발동기와 그에 토대한 하나의 새 공업의 탄생이 선포될 력사적순간이 다가왔다.

경애하는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곧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용감무쌍히 떠민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월 18일 이른새벽 몸소 서해위성

발사장에 나오시여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상태를 세심히 료해하시고 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순간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대출력발동기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시험결과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완전히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 발동기동작 전 과정에서 연소실의 추진력특성과 타빈뽐프장치, 조절계통들을 비롯한 모든 계통들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하여 안정하게 유지되였으며 구조적믿음성도 충분히 보장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게 시험결과를 주시하던 일군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성공적인 과학기술지표들에 접하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국방과학자들을 한품에 뜨겁게 포옹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과학자에게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순간 용암처럼 열광의 환호로 끓어넘치던 시험현장에 숨소

리마저 멎어선듯 고요한 정적이 깃들고 빛나는 눈동자들은 눈물이 가득 고인채로 위대한 어버이, 위대하신 스승과 이름없는 한 과학자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였다.

너무도 놀랍고 무엄하여 주저하는 그를 뜨겁게 그러안으시고 스스럼없이 등에 업으신 그이께서는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였다.

원수님의 두어깨를 두팔로 꽉 그러잡고 엉엉 울며 위대하신 그이의 등에 업혀 대줄기같은 눈물을 쏟는 과학자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 자식을 업은 아버지처럼 걸음을 옮기시며,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며 전사의 공로를 그토록 값높이 평가해주신것이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하신 어버이와 국방과학자들의 혼연일체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불멸의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미싸일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미싸일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적인 미싸일공업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대출력발동기개발은 기존관념으로는 거의 10년, 최

소한 7∼8년이 걸려야 할뿐 아니라 보통의 담력과 배짱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어려운 길이였다.

정해진 시간은 불과 몇달, 요구하는 수준은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하면서도 우리의 공업토대에 맞게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개발의 길에서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략적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결사전에 총궐기해나섰다.

새로운 무기체계개발의 중요성과 전략적의의에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이들의 심장마다에 원쑤격멸의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었다. 죽으나사나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그이의 불같은 호소는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수준을 무조건 돌파해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를 억척같이 다져주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시간을 앞당겨 마침내 맡은 전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것이라고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됨

으로써 미싸일분야에서 세상 제노라고 하는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미싸일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강국의 눈부신 령마루에 높이 올라선 우리 조국의 승리에는 주체적무기개발완성을 위해 열혈의 심장을 아낌없이 다 바쳐 투쟁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고 시험에 참가한 국방과학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참으로 주체적인 미싸일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3.18혁명》은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 특대사변이였으며 바야흐로 이 행성에 주체조선을 중심으로 한 전대미문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장엄한 뢰성을 예고하는 승전서곡이였다.

7월의 련전쾌승-《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2017년 2월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을 이룩한 때로부터 몇달사이에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핵강국으로 급부상시키는 승전포성들이 련이어 장쾌하게 터졌다.

주체적인 미싸일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3.18혁명》, 주체적핵무력건설사에 특기할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미싸일 《화성-12》형시험발사,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싸일시험발사, 5월과 6월에 새로 개발한 신형지상대해상 순항미싸일시험발사 등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기적적인 성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돌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강대성과 발전잠재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위대한 사변들이였다.

세계여론은 일치하게 조선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가 림박하였다고 평하고있었다.

급해맞은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막아보려고 온갖 발악적시도를 다 해댔다.

2017년 6월 미국은 유엔을 발동하여 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탄도미싸일발사를 걸고드는 《제재결의》 2356호를

조작하는 등 조선과 접한 국경과 해상, 세계금융통로들에 촘촘한 제재봉쇄그물로 우리 마지막생명줄을 끊어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또한 장거리미싸일요격훈련이라는것까지 벌려놓으며 어리석게도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한 승산없는 군사적모험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미국은 이미 4월초 수리아의 공군기지와 그 부근의 마을에 대한 미싸일공격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군용기들과 격납고를 파괴하고는 이것이 그 누구에 대한 《경고성》행동이라고 뻔뻔스럽게 줴쳐대였다.

그리고 5월초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수천㎞ 떨어진 태평양상의 한 바위섬을 목표로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고는 이 시험발사의 목적이 조선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뇌까렸다.

미국호전광들은 《대북선제타격》과 《평양점령》, 《북내륙진공》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훈련에 수천명의 《특수작전》전문살인악당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목표로 하는 실전연습에 열을 올리였다.

《특수작전》실행을 위해 미륙군과 해군의 특수전단과 해병대 등을 비롯하여 그 전해보다 3배나 많은 살인악당들을 연습에 동원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가 평한것처럼 조선반도

정세는 물면우에서만 긴장한것이 아니라 수중에서도 암투가 벌어지고있었다. 로씨야전략연구소 소장도 오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최대의 열점지역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반도 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것이 대규모분쟁을 산생시킬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시안)수뇌자회의에서 필리핀대통령은 미국이 조선문제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핵을 보유한 조선과 위험한 도박을 놀고있으며 조선반도에 전략무력을 파견하는것은 국제적공포만 초래할뿐이라고,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그 어떤 오판이나 미싸일의 자그마한 오동작도 대참사를 초래하게 되여있는것만큼 미국이 통제불가능한 일을 치지 않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며 교수인 제임스 페트라스도 미국의 위협공갈정책이 중동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한 오늘의 조선에는 전혀 통하지 않으며 미국은 결코 조선을 지배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홍콩신문 《문화보》는 북통을 크게 울려 산중의 호랑이를 놀래우려는 트럼프의 타산은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호랑이를 더욱 성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일단 미국이 대조선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한결같이 미국으로 하여금 비리성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심사숙고할것을 요구하였다.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힘으로 폭제의 야수 미국의 척추를 꺾어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실 단호한 결심을 내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를 대성공에로 이끄시여 《7.4혁명》의 폭풍을 일으키시였다.

2017년 7월 4일, 미국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정각 15시,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공화국의 통신, 방송들이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를 발표하였다.

보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략적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주체106(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되여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된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이며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첫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여 인민이 터치는 만세의 함성은 거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만리대공에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미싸일의 폭음마냥 천지를 진감하였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뻐기고있는 아메리카대륙에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며 미국의 《독립절》을 국치일, 망국일로 만들어버리고 세계정치계의 초점을 주체조선에로 집중시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전적으

로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이시며 제일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력사적인 대장거이며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세계언론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의 대성공을 두고 《미국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김정은**령도자는 이런 첨예한 정세속에서 이번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자주적대가 강하고 신념이 투철하며 과학적인 정세판단이 없이는 도저히 진행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김정은**령도자가 세계를 손에 쥐고 마음대로 주물러대고있다는 뚜렷한 실례이며 세계에서 가장 로련하고 세련된 정치실력가임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경탄하였다.

이날 조국의 하늘가를 붉은 화광으로 물들이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주사상이 집대성되여있었고 애국애족의 넋이 응축되여있었으며 참으로 눈물겨운 희생적인 헌신이 슴배여있었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자면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화학분야는 물론 천문학, 전자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자동조종리론 등 현대과학과 최대의 극비로 되고있는 발동기연료문제, 대기권재돌입시 전투부내부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문제 등 허다한 최첨단기술이 다 동

원되여야 한다.

미싸일을 발사하자면 또한 미싸일의 모든 요소들의 기초시험을 진행해서 완성한 다음 그것을 하나하나 결합하여 부분시험을 하고 또 그것이 완성되면 총적시험발사를 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시험단계들을 거칠 때마다 몸소 위험천만한 현지에 나오시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언제인가 시험이 잘 안되였을 때에는 과학자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도 해보라고 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고 돌아가시여서는 일군들에게 전화도 걸어주시고 집무실에도 불러주시며 미싸일개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밤 1시, 새벽 4시, 아침 7시… 때로는 조립현장에서, 때로는 집무실에서, 때로는 야전차에서 그이의 혁명시간은 거침없이 승리를 향해 질풍쳐나갔다. 힘에 부친다고 하여 일분일초도 멈춘적이 없으시였고 험한 길이라고 하여 에돌지 않으시였으며 위험천만한 시험장과 누구나 선뜻 나설수 없는 화선전구라 하여 피하지도 않으시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의 미싸일을 제작하는것을 주체적미싸일공업발전의 기준으로 내세우시고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시였다.

시험발사를 며칠 앞두고서는 30~35℃의 한여름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미싸일총조립전투현장에서 국방과학자들과 고생도 시련도 함께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에 의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준비는 성과적으로 완료되였다.

지난 시기 하나의 미싸일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하자면 보통 10년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기적을 창조하였다.

시험발사준비가 끝난데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사 전날인 7월 3일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친필명령을 주시고 7월 4일 인민들이 아직 단잠에 든 이른새벽 화선길을 달리시여 미싸일시험발사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이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을 바라보시며 미남자처럼 듬직하게 잘 생겼다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여 마지막 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미국에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싸일에 연료를 주입할 때부터 시험발사를 할 때까지 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며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사실 미싸일공업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오는 전문가들도 새로 개발한 미싸일무기체계의 첫 시험발사때에는 항상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군 한다. 이날도 시험이 성공하겠는지 실패하겠는지 종잡을수 없는 위구심으로 감시소에 있는 일군들 모두의 얼굴은 몹시 긴장되여있었다.

감시소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꼭 성공한다고, 꼭 올라간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켜주시였다.

드디여 9시,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이 용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되였다.

한초한초가 수십년맞잡이와 같은 긴장한 순간이 흘렀다.

발사된 미싸일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며 특히 우리가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전투부첨두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전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또한 1단계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을 재확인하고

실지 비행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단계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과 작업특성들을 확증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설계한 계단분리체계의 동작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하였으며 전투부분리후 중간구간구에서 중량전투부의 자체조종특성을 재확증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환경조건에서 말기유도특성과 구조안전성을 확증하였다.

특히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첨두내부온도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정상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장착한 이동식발사대차의 기동특성과 발사준비공정의 모든 기술적특성들도 무기체계의 전투기술적요구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참으로 대단한 성공이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콤퓨터화면에 현시되는 자료들을 세심하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싸일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자 제일먼저 완전대성공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박수도 제일먼저 쳐주시고 특대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꼭 껴안

아주시며 정말 수고했다고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였다.

미싸일개발전투의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참으로 웅심깊고 다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과 따뜻한 은정에 우리 국방과학자들이 목이 메였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처럼 분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을 위하여 언제 쉬시고 언제 방대한 자료들을 다 연구하시며 명철한 방안들을 탐구하시였는지 새로운 자료들을 내려보내주실적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던 그들이였다.

미싸일을 연구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개발자들이 제일 강렬하게 체험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는것을 제일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과 의도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미싸일의 일부 부분들에 다른 나라의것을 받아들이려할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완전히 털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주체식, 우리식 미싸일을 제작해야 한다고 그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과정은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상혁명의 계기, 자력자강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한 하나의 혁명대학과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자들이 미싸일부분시험에서 성공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로고는 깊이 묻어두시고 그 성과를 통채로 전사들에게 돌려주시였으며 정말 수고했다고, 당과 국가의 권위, 인민을 지키기 위한 길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최상최대의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우리 국방과학자들을 한없이 아끼고 믿어주시며 성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침내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이라는 특대사변을 안아오신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력사적인 날이다, 우리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가진 날이다, 우리 혁명은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핵도 만들고 전략미싸일도 만들었으며 오늘은 이렇게 대륙간탄도미싸일도 가지게 되였다, 이제는 우리 나라가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이 되였다고 말씀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의 대성공은 장장 수십년세월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시면

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략적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을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이번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쳐나가는 우리 조국의 영웅적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시위이며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한 날인 3월 18일을 《3.18혁명》의 날로 영원히 아로새기도록 하였는데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날인 7월 4일을 《7.4혁명》의 날로 영원히 아로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7월 4일의 특대사변은 기나긴 반미대결전을 치르며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들에 쌓이고쌓인 증오와 분노,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화산의 분출처럼 후련하게 터쳐올린 력사의 장거였고 우리 공화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였다.

조국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7.4혁명》으로 하여 나라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민족의 운명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은 더이상 어제날의 작은 나라가 아니며 조상대대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정학적숙명론도 영영 과거사로 되여버렸다.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1차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5천년민족사의 숙원을 푼 온 나라는 명절분위기로 들끓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것처럼 무서운 악몽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화성-14》형 1차시험발사이후 우리의 성공과 그 위력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면서도 극도의 공포감으로부터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공격하며 추가제재를 가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였다.

특히 미군부는 우리의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에 기겁하여 괴뢰호전광들과 련합탄도미싸일무력시위라는것까지 벌리며 정세를 더욱 격화시켰다.

미국의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전략적지위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정신을 잃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을 다시금 명백히 시위할것을 결심하시고 국방과학자들에게 대륙간탄도미싸일 2차시험발사를 준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준비를 하면서 미싸일개발자들이 첫 시험의 대성공을 안아온 그 기세, 그 정신으로 계속전진, 련속공격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미싸일과학자들을 몸소 찾아가시여 만나주시고 이른새벽 집무실에 불러도 주시며 시험발사문제를 놓고 허심하게 토론도 해주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7년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2차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을 이룩하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위력을 장쾌하게 떨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서 미싸일수직화작업을 비롯하여 위험천만한 발사준비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감시소에 오르시였다.

시험발사는 대형중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사명령에 따라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은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는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고각발사로 진행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미싸일 2차시험발사를 통하여 지난번 1차시험발사에서 확증되였던 작업특성들과 개선된 유도 및 안정화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확증되였다.

또한 전투부분리후 중간구간에서 중량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최대사거리비행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발사체계에서의 재돌입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되였으며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안전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동작하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발사되는 순간부터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미싸일을 바라보시다가 콤퓨터화면에 현시되는 자료들을 세심히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싸일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자 제일먼저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고 미싸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

군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립증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이 정도이면 미국의 정책립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2차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미싸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미싸일개발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힘

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믿음과 사랑, 헌신과 로고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2차시험발사는 완전대성공을 이룩할수 있었다.

온 행성을 뒤흔든 《7.4혁명》을 통하여 세계는 이 지구상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싸워이길 나라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깨달았으며 7.28의 기적적승리로 주체조선은 불패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또다시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은 웃고 미국은 울고있는 7월의 련전쾌승.

이것은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였고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조국과 민족만대의 앞길에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담보해주는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으로 되였다.

9월의 장쾌한 뢰성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관심속에 우리 공화국은 주체105(2016)년에 첫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주체106(2017)년 9월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는 또 하나의 일대 사변을 안아왔다.

당시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여간만 복잡다단하지 않았다.

미본토전역이 명실공히 우리 공화국의 사정권안에 들어오게 된 엄연한 현실앞에 기절초풍한 적대세력들은 어리석게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이를 애써 부정하는 한편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파도식으로 련속 들이밀며 전례없는 군사적위협공갈에 광분하였다. 그에 병행하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반인륜적인 불법비법의 《제재결의》들을 련속 조작해냈다.

조선반도정세는 핵전쟁의 문어구로 각일각 들어서고있었다.

조성된 국제정치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수소탄시험을 단행할 대용단을 내리시고 그 준비사업을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였다.

2017년 9월 3일부 《로동신문》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미싸일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시는 영상사진문헌과 그이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이 실리였다.

신문은 핵무기연구소가 핵무기병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전하였다.

공화국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은 2016년 1월에 진행한 첫 수소탄시험에서 얻은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기술적성능을 최첨단수준에서 갱신하였다.

새로 제작한 수소탄은 핵탄위력을 타격대상에 따라 수십kt급으로부터 수백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수 있으며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뿐 아니라 전략적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주체식열핵무기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강화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렬 및 열핵장약을 비롯한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핵물질생산공정으로부터 부분품정밀가공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앞으로 강위

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꽝꽝 생산해낼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

이것이 세계를 끓게 한 또 하나의 강력한 충격이였다.

경제가 발전되고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최첨단무기를 바로 력사상 류례없는 봉쇄와 고립압살의 포위환속에 있는 나라가 제힘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놀래우는 특대사변이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자랑찬 과시인것이다.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 오랜 기간 존재해온 핵렬강들에 의한 힘의 구도를 또 한번 변화시킨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의 탄생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담대한 배짱과 심혈이 어린 고귀한 결정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방과학자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도 정해주시고 비범한 과학적예지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핵무기병기화를 강국건설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시고 주체적열핵무기의 개발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몸소 그 실현을 위한 기발한 명안도 안겨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

와 헌신의 만단사연은 몇백, 몇천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와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그토록 짧은 기간에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을 만들어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핵무기병기화수준을 당에서 제시한 완결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해 피타는 투쟁을 벌려온 원자력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들과 일군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최강의 핵탄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이며 온 나라가 떠받들고 자랑해야할 숨은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신 소식은 원쑤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련속공격전, 무릎을 꿇을 때까지 답새기는 드센 타격력으로 놈들을 기절초풍케 하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날 오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석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를 분석평

가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진행한 핵무기병기화연구사업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얼마후 지심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뒤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이 전파를 타고 온 행성에 울려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9월 3일 12시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고 하면서 시험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모든 물리적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된 시험과정에서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을 비롯한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공화국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였을뿐 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였다.

주체식열핵무기의 장쾌한 폭음은 전 세계에 초강력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한 핵보유국으로서 공화국의 실체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날의 폭음은 조선은 마음먹으면 그 무엇이나 다 해낼수 있고 다 이룩할수 있으며 힘의 《만능》을 떠벌이는 적대세력들에게 조선은 어떤 강적과도 싸워 통쾌하게 이길수 있는 만능의 힘을 지닌 불패의 최강국이라는것을 선언한 가슴후련한 포성이였다.

이 장쾌한 폭음은 원자탄과 수소탄을 휘두르며 인류를 위협하고 우리 인민에게 수십년간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쌓이고쌓인 분노와 천백배의 복수심을 다 합쳐 터쳐올린 거대한 불뢰성이였다.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은 《북이 이번 수소탄시험에서 핵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는 북의 주

장을 무시할수 없다.》, 《북이 수소탄제조능력을 확보한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언론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학자, 전문가들도 Mt급의 엄청난 핵반격능력을 보유한 공화국의 물리적억제력에 주목하면서 현재 이만한 핵력량을 증명한 나라는 5대핵보유국뿐이라고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병진의 길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감격적인 소식에 온 나라가 세차게 환호하였다.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 각지의 도, 시, 군들에서는 련일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들이 성황리에 열리고 온 나라는 명절분위기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전 과정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고도 제일먼저 핵과학자들에게 성공을 축하하는 인사를 보내주시였으며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대규모의 평양초청행사를 몸소 조직해주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탄생한 경사로운 9월에 수소탄의 거대한 뢰성을 가장 장쾌한 승전가로 어머니조국에 삼가 드린 우리의 자랑스러운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축하연회석상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은 전체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부

문별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관철한 핵개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는 전투장에 용약 뛰여들어 그 어떤 명예와 평가도 바람이 없이 청춘도 생명도, 단란한 가정의 행복도 아낌없이 다 바치며 당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한 핵결사대원들을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진짜애국자, 숨은 공로자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지심깊이 묻혀있는 그들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갈피갈피를 속속들이 다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모든 참가자들은 저도 모르게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진정 북부핵시험장에서 수도에로 이어진 전례없이 열렬한 연도환영, 군민경축대회의 특별초대석에도, 따스한 잠자리와 식사차림표, 성대한 연회와 축하공연의 매 곡목에도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이나 핵전투원들을 생각하시며 금방석에 앉혀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어버이심정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공화국의 존엄이 실린 주체탄의 줄기찬 뢰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함으로써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국가를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정녕 뜻깊은 9월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킨 초강력열핵무기의 장쾌한 뢰성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였으며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대승리였다.

력사에 특기할 《11월대사변》

인민의 환희가 하늘끝에 닿은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궁지, 불패의 강국의 령마루에 우뚝 올라선 인민의 기상이 강산에 차넘치던 날, 자연의 계절은 추위를 몰아와도 격정으로 일렁이는 인민의 기쁨과 웃음꽃이 온 강산을 후덥게 하던 11월의 그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주신 친필명령.

《시험발사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쏘라!
김 정 은
2017. 11. 28》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장군님께서 그으신 그 친필명령서의 획과 점을 따라 미더운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이 대기를 헤가르며 기운차게 나래쳐올랐다. 행성을 뒤흔드는 장쾌한 뢰성과 더불어 력사의 하늘가에 승리의 무지개를 또 한번 새기였다.

《화성－15》형의 시험발사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에 따라 진행된 일대 장거였다.

이해 8월 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련속시험발사에 질겁한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까지 투입하여 반공화국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악명높은 핵전략자산들로 조선반도를 겹겹이 에워싸고있었다.

완전히 리성과 분별을 잃은 미국은 사상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매여달리며 우리 인민을 감히 놀래워보려 하였다.

조성된 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부문에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수 있는 새형의 미싸일개발방향을 제시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여 《화성—15》형무기체계를 완성시켜주시였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뼈에 새긴 결사관철의 선봉투사들이며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인 군수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9축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연구개발하였다.

《화성—15》형과 같은 새형의 자행화된 미싸일무기체계를

단 몇달동안에 개발완성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였고 세계미싸일개발력사에 전무한것이였다.

미싸일제작은 물론이고 발사대차와 운반수단에 이르기까지 100% 다시 설계하고 다시 제작해야 하는 일이였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개발전투장과 발동기분출시험장들에 나가시여 실태를 수시로 직접 료해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성공에로 떠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자신의 온넋과 정과 열을 기울이시며 걷고걸으신 화선길이 있어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장약되고 인민의 운명과 존엄,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는 《화성-15》형이 마침내 자기의 우람찬 자태를 드러내게 되였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준비가 완료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장에 나오시여 먼저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아주시였다.

주체조선의 존엄을 우주만리로 떠올릴 신비한 주체탄을 소중히 품어안고 발사장에 진출할 발사대차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발사대차를 흠잡을데 없이 잘 만들었다고, 도장도 미끈하게 잘하고 모든 요소들을 아주 세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대차개발전투에 참가한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비록 자기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아도 조국이 이룩하는 민족사적승리들에 바쳐진 지혜와 열정을 긍지높이 간직하며 그 길에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심장을 불태운 이곳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이야말로 조국수호의 제1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화선용사들이였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을 받든 열혈충신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며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2017년 11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발사장으로 나가시여 대륙간탄도미싸일수직화를 비롯한 발사전 공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휘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시험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초긴장상태에서 바라보는 속에 《10, 9, … 2, 1, 0》.

《0》이 표시기에 표시되는 순간.

섬광이 번쩍이면서 《화성-15》형의 육중한 동체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치솟아올랐다.

주체조선의 기적적인 힘을 재운 대륙간탄도미싸일 《화

성－15》형은 눈부신 섬광속에 찬연한 비행운을 새기며 우주로 우주로 끝없이 솟구쳤다.

《화성－15》형이 내뿜는 거대한 불줄기가 미국땅을 통채로 불바다속에 몰아넣는것과 같은 력사적화폭이였다.

기동성과 명중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무기체계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무기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나라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였다.

세계에는 제노라 하는 군사강국들이 있지만 우리 공화국처럼 첨단전략무기체계를 100%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과 자재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나라는 이 행성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들에서도 탄도미싸일개발에서 100% 국산화란 말은 사실상 신화적인 용어로 통용되고있었다.

대륙간탄도미싸일에는 고열과 고압에 견딜수 있는 소재들과 최첨단전자제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분품들이 들어가야 하였다.

이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려면 현대적인 금속, 화학, 기계, 전자공업 등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자립공업이 있어야 하였다.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바로 이것이 세계를 경탄시키고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주체조선의 강력한 국방공업의 눈부신 위용이였고 조선의 자위

적핵억제력의 놀라운 위력이였다.

만리대공으로 솟구친 우리의 주체탄들의 장쾌한 비행운은 자주의 사상과 신념을 만장약하고 자기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자기의 손으로 열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눈부신 화폭으로 실증해주었다.

이날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시켰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의 단번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새형의 미싸일무기체계개발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리심없이 화선에 나오시여 신변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전략무기체계개발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시고도 오히려 국방과학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진정 드넓은 대지에도 다 담을수 없는 이런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 이들은 원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라는 심장의 글발을 마음속에 새겨안고 사생결단의 탐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마침내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단번에 바

꾸어놓는 최강의 전략무기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이것이 령도자의 두리에 뭉친 조선의 투쟁방식이였고 위대한 인민의 투쟁본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 이것은 단순히 첨단과학기술의 창조물로만 볼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과 기상을 안은 주체조선의 보검이였고 강국에로 전진하는 인민의 의지가 응축된 사회주의의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것이였다.

이 특대사변은 미국이 더이상 조선의 맥을 잘못 짚고 몽유병자처럼 놀아댄다면 그의 최후멸망을 필연코 선언하리라는 것을 보여준 력사의 분기점이였다. 조선의 진군을 악의에 찬 폭언으로 헐뜯고 제재압살책동에 온갖 밑천을 다 쏟아부으며 발광하던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망상은 산산이 깨여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로동당이 선택한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선언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될 결사의 애국정신력을 지니시고 걸음걸음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초행길을 헤치시여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시고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위대한 승리를 인민의 이름과 존엄으로 빛내여주시였다.

《화성-15》형시험발사의 성공은 천하제일강국의 꿈과 리상을 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용감히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감히 우리 인민의 존엄을 건드리고 이 땅에 선불질을 해댄다면 그 어떤 원쑤도 지구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것을 선언한 일대 장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상대대로 렬강들의 희생물이 되여온 민족의 원한을 씻어버리시고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바쳐온 무수한 피와 땀, 눈물과 희생을 위대한 승리로써 빛내여주시였다.

온 세계가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시험발사의 성공소식으로 들끓는 속에 수도 평양에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맞이하는 환희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격동의 날과 달이 흘러간 이해에 수도 평양은 많은 영웅들을 맞고보냈지만 12월에 펼쳐진 환희의 꽃바다는 격정으로 더 세차게 설레였다.

강산을 뒤덮은 흰눈마저도 축하의 꽃보라인양 정답게 흩날리고 얼굴을 스치는 찬바람마저도 환희의 열풍마냥 후덥게

안겨오는 조선의 12월이였다.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고 개선용사들처럼 평양으로 들어서는 미덥고 장한 국방과학자들,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 개발자들에게 수도시민들은 뜨거운 인사를 보내였다.

12월에 펼쳐진 환희의 바다, 이것은 남들이 하늘에 비행기를 띄울 때 하늘소를 타고 다닐수밖에 없었던, 남들이 대포를 쏠 때 화승총으로 독립을 이룩해보려던 한세기전의 약소민족이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민족으로 되였음을 자부하는 이 나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의 폭발이였다.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는 우주만리창공에 높이 치솟아올랐다.

온 세상에 그 위용을 과시하며 우주만리에로 솟구쳐오른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에 대한 가장 고귀한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이 대사변, 대경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공화국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였고 남들 같으면 엄두도 못낼 짧은 기간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한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영웅신화였다.

3. 더 높이 비약하라!

주체110(2021)년 10월 1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석하에 성대히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공화국의 국방정책과 그 빛나는 생활력이 집대성된 대규모열병식에 못지 않게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국력시위로 되였다.

공화국을 건드리는 적대세력들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길수 있는 미더운 화성포들, 목표물을 순간에 정확히 타격하는 여러 구경의 방사포들, 현대화된 땅크와 각종 전술미싸일과 반항공무기체계, 현대전의 요구와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체질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각종 저격무기들.

얼마나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인가.

온 나라 인민이 감탄하고 세계가 경탄하였듯이 전람회장에 전시된 무장장비들은 군사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놀랄 정도로 발전된 최신형무장장비들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무장장비개발에서 제노라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자그마한 권총탄알로부터 시작하여 거대한 전 지구권타격미싸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장장비들을 100% 자체의 과학과 기술로 만들어내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성대한 전람회를 통하여 공화국은 사회주의조선을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하며 세상에 무시할수 없고 적대세력들이 반드시 두려워해야 한다는것을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전람회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무장장비들은 쓸어보고 만져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커지는 소중한 우리의것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념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인민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한몸에 지니시고 국방력강화의 간고하고도 험난한 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그이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가 눈앞에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앞장에서 헤쳐나가신 길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생눈길이였다.

누구나 쉽게 선택할수 없고 누구나 쉬이 갈수 없는 길이였다.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그 누가 아닌

바로 자신께서 지켜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지니신 우리 원수님이시였기에 자력으로 국권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는 사생결단의 험로역경에 주저없이 들어서신것 아니신가.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두려워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 걸음마다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련속적인 성공을 안아오시던 그 길에는 인민들이 단잠에 든 깊은 밤과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로동계급을 찾아가신 수백리길도 있었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저없이 나서시던 위험천만한 화선길도 있었다.

그 나날 원수님께서 우리 식의 새로운 무기체계개발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국방과학자들과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참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묵새기시며 고뇌와 로고로 맞으신 새날은 또 얼마였던가.

우리의 국가방위력을 하루빨리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높은 애국열의와 헌신적인 로고가 있었기에 세계병기분야에 개념조차 없는 초강력다련발공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한 위력한 무기체계들이 단 몇개월사이에 빠른 속도로 개발완성될수 있었다.

2019년에도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들만 보유하고있는 첨단무기들의 위력을 훨씬 릉가하는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 등 새 무기시험발사장

에 자주 나오시여 무기시험사격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2021년 9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시험발사와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 그리고 극초음속미싸일 《화성-8》형시험발사와 반항공미싸일시험발사 등은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이다.

조국의 안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을 담보하는 무적의 힘을 인민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 원수님 결단코 단행하신 그 길이 있었기에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과 제재봉쇄가 극도에 달하였던 때에 주체병기들의 뢰성이 련이어 울려나와 온 행성을 통채로 뒤흔들어놓을수 있었다.

참으로 전람회장에 즐비하게 늘어선 무장장비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모두를 위한 더욱 강하고도 절대적인 힘을 키우시려 필연코 단행하신 국가방위력강화의 길, 미지의 생눈길이 응축된 고귀한 결정체들이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서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실상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과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이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최대의 선물이며 그이의 위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 결사의 의지가 높이 떠올린 주체조선의 강력한 힘이고 최고의 존엄이다.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불같은 애국의 열망으로 심혼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단 몇해사이에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서 빛을 뿌리는 감격과 환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하여 짓밟히고 우롱당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내 조국의 강대한 모습은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위대한 인민의 크나큰 행운을 가슴뿌듯이 새겨안게 한다.

하기에 전람회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조국,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함께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절절히 토로한것 아닌가.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은 공화국 국방정책의 진수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정세하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것은 혁명과 시대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이다.

현실은 사소한 자만과 답보도 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들과 위협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추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국방력강화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자만도취되여 발전의 길에서 잠시나마 주춤한다면 우리 인민의 안전이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수 있다.

강력한 군사력보유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여야 한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은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전을 제압하고 나라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담보이다.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국방발전전람회를 크게 진행하는 진목적은 이를 계기로 하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을 고무하고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려는데도 있지만 기본은 나라의 국방력발전을 더 힘있게 추동하자는데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의 방위력을 혁명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족스럽게 키워온 영광스러운 국방공업의 력사를 돌아보면서 자부를 느끼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반세기 넘게 피와 땀을 고여온 그 강인한 노력과 이룩해놓은 발전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디디고

더 높이 비약해 뛰여오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발전정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에 토대하여 각 분야의 비약적발전을 구상, 설계하며 지금까지 축적된 우수한 경험들을 교환, 공유하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에 더 빨리 올라서기 위한 방략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긍지높이 과시하는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념연설에 접한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새 승리를 향한 보람찬 진군길을 더욱 신심드높이 내달릴 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독창적인 자위적국방전략사상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강위력한 주체의 보검들을 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눈부신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특히 2022년초부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과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 장거리순항미싸일체계갱신을 위한 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 탄도미싸일 《화성-12》형검수사격시험 등 여러 차례의 주체무기시험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2022년 3월 24일에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을 쏘아올렸다.

주체적힘의 응결체,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우리의 《화성포-17》형은 주체적인 국방발전전략과 지속적인 전쟁억제력강화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산아이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의 전략적힘, 전쟁억제력은 더욱 완비되고 더욱 강해질것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우주만리 창공높이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다.

제 3 장

김정은조선—전쟁억제력의 사명과 역할

1. 우리의 주적－전쟁 그자체

거슬러보면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만 하여도 국가들의 군사력의 강약에 대한 론의는 대체로 군대의 수나 상용무기의 질, 량 등이였다. 하지만 무기발전의 4단계에서 특정한 무기 즉 핵탄과 그 운반수단이 개발되면서부터는 그것들이 해당 국가의 군력과 전략적지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징표로 되고있다.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조선은 순서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9번째로 핵구락부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세계 9위의 핵강국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 4강의 핵강국이다. 핵구락부에는 서렬이 있다. 핵구락부서렬은 핵탄두의 운반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1급은 사거리 1만㎞이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은 1급핵보유국이다.》라고 하였다.

남들이 상상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은 가장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라섰으며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공화국이 보유한 전쟁억제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

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로동당창건 76돐을 맞으며 성대히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기념연설에서 공화국은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지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에서 다른 개념이라는데 대하여,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명제에서 그것을 음미해볼수 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자체이다!

오늘날 세인이 경탄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전쟁억제력은 철두철미 전쟁을 막고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을 보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키워온 자위적힘이다.

나아가 그것은 핵전쟁 그자체이며 핵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것은 인류의 지향이며 진리의 힘을 막지 못한다는것은 력사의 절대법칙이다. 인류력사

가 시작된이래로 어느 한시도 평화를 갈망하지 않은적 없지만 인류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여왔다.

특히 20세기에 있었던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의 무참한 살상과 도시들의 파괴를 가져왔다. 인류와 더불어 시작된 전쟁사, 그 처참한 피의 자욱에 무려 36억의 인명피해가 났다는 자료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50년동안에만 하여도 100여회의 전쟁으로 2 400만명이상이 죽음을 당했으니 전쟁은 실로 재난과 불행의 대명사였다.

하기에 로씨야의 문호 레브 똘스또이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알려진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19세기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전쟁과 그를 전후한 력사적시기의 사회생활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보여주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념원에 대해 나름대로 피력하였다.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은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 부흥을 담보한다. 아무리 자원이 많고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해도 전쟁이나 동란 같은것이 일어나면 모든것이 파괴되고 사회발전은 그만큼 멀리 퇴보하게 된다. 그래서 평화는 건설이고 창조이며 행복이고 인류의 영원한 리상이라고 하는것이다.

전 인류의 가치이고 최고의 지성이며 문명의 미덕인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대한 의미로 부각되고있다.

민족은 정치체제와 리념을 초월하는 절대적존재이다. 조선

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문제는 전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다시말해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인것이다.

왜서인가.

그것은 우선 외세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운명개척에 엄중한 장애로 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떠돌고있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단계들마다 악랄하게 감행되여온 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과 침략위협 등에 의한 우리 공화국인민들의 정신적압박감과 정치도덕적, 문화적피해는 돈으로 계산할수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으로 하여 조선민족이 당한 물질적 및 정신적피해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을 정도였다.

실례로 전쟁 전 기간 평양시에 떨어진 폭탄만 해도 시민 한사람당 1개가 넘는 42만 8 700여개나 되였다.

전쟁전에 평양에는 약 7만 4 000개의 가옥과 행정기관 및 문화기관건물들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거의다 파괴되고 온전한 건물이라고는 시내에 하나도 없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반만년을 내려오며 살아온 겨레의 삶의 터전이 또다시 페허가 되고 민족의 생존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문제는 지역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과 직결된 문제라는데 그 중요성의 또 하나가 있다.

동남쪽으로는 해협을 사이로 일본을 가까이하고있고 서북쪽으로는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로 중국과 잇닿아있으며 동북쪽으로는 두만강을 사이로 로씨야와 린접해있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읽을수 있을것이다.

하기에 조선반도는 오래전부터 주변대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으로, 마침내는 그들사이의 각축전장으로 되여왔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족이 조선반도를 지구의 어느 다른 곳으로 옮겨갈수도 없으며 또 우리 민족이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그 어디로 옮겨가 살수도 없는 일이다. 어차피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에서 삶을 누려야 하며 여기에서 자기의 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된 국가를 이룰 경우 다시 말하여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강국을 일떠세울 경우 조선반도가 가지는 지리적위치의 중요성과 가치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하지만 전 인류가 그토록 념원하는 평화는 아직까지 꿈으로 남아있으며 인류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 피비린내 풍기는 전쟁사는 종식되지 않고있다.

누군가 말했듯이 전후 조선반도에서 반세기이상 지속된 평화는 사실상 핵전쟁발발의 분화구앞에 서있는 평화, 불안정한 평화이다.

흘러온 력사의 교훈과 오늘날 공화국을 둘러싸고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는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또다시 처절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국가의 존립 그자체가 끝장나고만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 첫날부터 자위적국방력을 꾸준히 키워왔고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오늘날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온 나라 인민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는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놓았다.

진정 공화국의 국방력강화사업은 그 첫걸음부터 철저히 자기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작되였고 오늘까지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국방정책의 진수는 자기 힘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이며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평

화를 믿음직하게 흔들림없이 수호하는것이라고 명쾌하게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주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 그자체이지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는것, 이것이 **김정은**조선의 의지인것이다.

2.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보검

어느한 정치분석가는 《제국주의는 통치와 전쟁을 위해 전쟁억제력을 쥐였고 조선은 원칙과 공정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에 대한 도덕적사명감으로부터 전쟁억제력을 쥐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최고의 징벌이며 천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산아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한 언론인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조선사람의 높은 자존심이고 우리의 맑은 하늘이며 우리들 매 사람의 가슴속에 장엄하게 울리는 애국가이고 민족이 웨치는 세기적숙원성취의 만만세이다.》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옳은 말이다.

지난날 렬강들의 독점물이였고 그것으로 하여 지배와 패권, 강권과 압제의 수단, 전쟁과 공포의 대명사였던 핵은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갖춘 조선의 출현으로 자기의 부정의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선의 전

쟁억제력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평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보검, 지역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는 위대한 수호의 힘이다.

이것이 조선의 전쟁억제력의 본질인 동시에 그 사명과 역할이며 조선의 전쟁억제력의 새로운 정치학이다.

무릇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일러 정치학이라고 할 때 전쟁억제력을 연구하는 정치학은 전쟁억제력의 성격과 사명과 그 역할에 따라 규제되기마련이다.

조선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과 문명에 복무하는 민족수호의 보검,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지켜주는 평화수호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새롭게 정립한 바로 여기에 조선의 전쟁억제력의 진정한 의미와 거대한 무게가 있고 세계사적의의가 있다.

바로 여기에 조선의 전쟁억제력의 정의의 성격이 있으며 **김정은**조선의 전쟁억제력의 새로운 정치학의 의미가 있는것이다.

진정 조선민족으로서 얼마나 긍지롭고 가슴뿌듯해지는것인가.

미국의 핵은 핵전파와 핵군비경쟁을 낳지만 조선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렬강들의 핵우세와 패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평화롭고 안정된 새 질서를 확립할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재미동포 정기렬은 이렇게 토로한바 있다.

《제국의 핵무장이 인류의 종말을 만드는 죽임의 핵무장이

라면 조선의 핵무장은 인류를 종말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는 정의의 핵무장이다. 미국의 핵무장이 세상을 위협공갈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죽임의 핵무장이라면 조선의 핵무장은 미제의 핵공갈위협을 영원히 끝장내는 평화와 번영,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살림의 핵무장이다.》

옳바른 진단이 아닐수 없다.

주체106(2017)년 12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후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해줄수 있는 강위력한 담보를 불굴의 애국적인 헌신으로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설을 헤치시고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웅건장중한 뫼부리에 백설을 흩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령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반만년력사의 숙원을 이루며 우리 조국의 억센 위상이 장엄무쌍한 백두산의 모습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 가운데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봉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창공을 치뚫고 높이 솟은 아아한 절벽들과 눈부시게 아득한 천리수해를 이윽토록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올라와보았지만 오늘

처럼 한겨울에 봄날에도 보기 드문 좋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어찌나 날씨가 맑은지 천지호반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선듯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천하를 굽어보는 백두산에는 이 땅에 불어오는 온갖 역풍들을 백두산바람으로 산산이 부셔버리고 력사의 흐름을 정의와 진리의 한길로 주도해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따라 나가는 영웅조선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행성에 없다는 승리의 희열이 끓어번지고있었으며 백두의 해돋이마냥 밝고 창창한 눈부신 조선의 미래가 빛발치고있었다.

주체109(2020)년 뜻깊은 전승절에 열린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보유국에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변했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가장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을 가진것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온 민족의 대경사이며 크나큰 영광이다.

지난날 화승총조차 변변히 없었던탓에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하고 렬강들의 흥정판에 올라 란도질당해야만 했던 우리 민족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오늘은 민족만대

의 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검을 틀어쥔 위대한 민족으로 될수 있었다.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안으시고 이 조선을 세계적인 강국전렬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사적업적을 찬양하며 온 겨레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경건히 드리고있다.

《이제는 우리 민족도 당당한 핵보유민족이 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이북의 강력한 핵억제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이북의 주민들뿐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이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민족자주통일과 강성번영의 창창한 앞날이 기약되여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원수님께 달려있다.》라는 흠모의 목소리가 우리 겨레가 살고있는 곳곳마다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중국력사에 기록되여있는 후한말의 《적벽대전》은 손권과 류비가 손을 잡고 주유와 제갈량이 꾀를 써서 조조의 100만대군을 적벽강에서 섬멸한 유명한 전투인데 그것은 후한의 천자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던 조조에 비해 약세였던 손권이 전쟁의 유리점을 쥐고 정면대결을 할 결심을 내린 결단이였다.

라관중은 이것을 유명한 력사소설 《삼국연의》에서 력사의 한 장면으로 감동적으로 그려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반제대결전에서의 단호한 용단과 대성공

그 하나하나의 화폭들을 어찌 《삼국연의》의 대장편소설에 비할수 있으며 고대그리스시인 호메로스가 창작한것으로 전해지는 《일리아스》 같은 대전쟁서사시에 어찌 비길수 있으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여 민족운명과 발전의 만년담보, 세계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놓고 우리 겨레와 인류는 민족운명의 수호자, 세계평화의 수호자로서의 만고절세의 위인상을 절감하고 또 절감한다.

어느한 국제정세전문가는 《**김정은**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은 한다면 하는 조선의 힘을 세계에 보여준 대장거이며 외국의 지원도 없이 위성이면 위성, 핵탄이면 핵탄 마음먹은대로 만드는 조선이야말로 진짜 유일초대국이다.》라고 했고 로씨야의 한 정치분석가는 《평양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가지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세력구도에서 커다란 변화로 된다. 아시아태평양에 힘이 대등한 지역렬강이 출현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조선이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보유로 세계평화의 확고한 축이 마련되였다. 따라서 세계정치무대에서 **김정은**조선이 어떤 위치에 설것인가 하는것이 명백해졌다.

조선의 전략적인 강국전렬에로의 도약은 적대세력들과의 대

결양상이 그 폭과 속도, 형태에서 변화무쌍하고 무변광대하며 이것은 승리라는 확실한 목표를 현실로 이루어내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주체111(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께서는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있을수는 없다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사상초유의 대정치축전으로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 대한 충격과 파문이 국제사회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갈수록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연설은 세계최강이다, 오늘날 북이 가지고있는 힘의 의미, 북이 가진 절정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한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강인함을 선명하게 표현한 연설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렇다.

힘과 힘이 치렬하게 격돌하는 현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할수 있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해 담보되는것이다.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이, 후손만대의 장래가 여기에 달려있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 행복을 지키는 성스러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고 무적의 군사적강세를 틀어쥐고 정의의 위업을 튼튼히 담보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원칙은 확고부동하다.

적대세력들이 골수에 박혀있는 조선에 대한 지독한 적대감과 끈질긴 침략야욕을 깨끗이 버릴 때까지, 평화를 해치고 번영의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반동세력들의 음모와 방해책동이 철저히 박멸될 때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결심과 대응태세는 마지막끝까지 단호하고 흔들림없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희망인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보검－**김정은**조선의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의 사명과 역할이며 그 전망이다.

제 4 장

정의의 억센 힘 행성에 뻗치다

1. 세계를 뒤흔든 세기적만남－ 조미수뇌회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

조선의 국제적지위가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현실이다.

무릇 국가의 존엄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될진대 렬강들의 비위나 맞추고 폭제와 전횡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나라가 그 무슨 존엄을 말할수 있겠는가.

그 어떤 대국들도 감히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하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나라,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기 나라의 모든 활동을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진행해나가는 나라, 나아가서 주변형세와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나라가 바로 존엄높고 강대한 국가 **김정은**장군의 조선이다.

세계정치무대에서 이렇듯 조선의 존엄과 지위가 높은 경지에 올라서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정녕 그렇다.

미증유의 대흔적을 새기며 세계가 경탄하는 최강의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드디여 새로운 격동의 새시대 력사의 포성을 울리고 조선반도정세와 지역정세의 대전환을 위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주적대를 세우시고 불신과 대결의 장벽이 너무도 높아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조미수뇌회담을 현실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란만장의 조미관계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력사적순간이 오고있었다. 세기적만남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게 된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인 싱가포르는 말라이반도의 남쪽에 있는 싱가포르섬과 그 주변에 있는 6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면적이 722.5㎢이고 인구는 568만 8 700여명정도이다.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중립적인 나라, 국제중계무역중심지의 하나, 관광의 나라 등으로 알려져있고 대외적으로 뿔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싱가포르에서 력사에 특기할 조미수뇌상봉이 열려지게 된것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을 주최한것으로 하여 싱가포르는 세계정치계에서 일약 《아시아의 제네바》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다.

싱가포르정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를 최대의 국빈으로 정중히 맞이하고 신변안전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최고수준의 전례없는 경호를 조직하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싱가포르당국이 조선의 **김정은**위원장을 최고의 국빈으로 맞이하였다, 싱가포르수상의 경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호를 보여주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김정은**위원장의 력사적인 방문에 싱가포르가 경호수준을 최대로 격상시켰다고 평하였다.

달라진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될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 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였다.

주체107(2018)년 6월 12일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하는 세기적만남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전 세계가 하루하루 기다려온 세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되여 력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커다란 흥분속에 주시하고있었다.

현지시간으로 9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국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였다.

온 겨레와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TV와 인터네트를 통해 직접 뵈오면서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였다.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력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이 화해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서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세계가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헐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도량과 포옹력, 절세의 위인상을 절감하는 력사적순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였다.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론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미 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대통령은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

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측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이날 조미수뇌분들과 쌍방회담성원들이 참가하는 오찬이 있었다.

오찬에서는 조미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래왕을 보다 활성화해나갈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함께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대통령과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

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

력하기로 하였다.

… …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이 열리고 4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세계정치사에 뚜렷한 한폐지를 남기게 된것이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의 각광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력사를 써나간다는것을 세상에 알린 력사적인 선언인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진정 세계의 각광속에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계기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한 중대한 력사적사변으로, 조미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세기적사변으로 평가하면서 전폭적인 지지환영을 표시하였다.

특히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활무쌍한 외교지략과 무비의 담력, 출중한 위인적풍모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킨데 그 세계사적의의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련속 터져나왔다.

세계의 정치평론가들은 새로운 국제적정의인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향해 노도쳐 질주하는 조선의 현 상황을 주시해보며 력사발전의 주도권이 **김정은**원수님의 손에 쥐여져있다고 일제히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BBC방송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북조선국무위원장께서 순식간에 2018년 정치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도자로 등장하시였다. 중국, 로씨야, 수리아,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김정은**위원장을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다. 말그대로 세계지도자들이 **김정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서고있다.》

도이칠란드신문 《디 웰트》는 **김정은**령도자와 트럼프대통령의 상봉은 현대사에서 가장 드문 사변의 하나라고 평하였

으며 세네갈인터네트신문 《세네웨브》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 몇달사이에 자신께서 생각하신것을 그대로 실천하시였다. 조미수뇌상봉은 특별히 력사적인것으로 될것이다.》고 한 어느한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하였다.

카나다신문 《토론토스타》는 《실지로 북조선이 정세를 주도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가고있는 상태이다. 북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군사강국이며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어느한 인터네트웨브싸이트에는 《미국과의 수뇌회담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위원장의 영상 부각》,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외교활동으로 지역의 력학구도가 크게 변한 상태》라는 기사가 실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내외동포들은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세기의 담판》, 《력사적인 대사변》, 《세기적인 악수》, 《환상적인 만남》 등으로 평하면서 《70년이상 적대적관계에 있던 조미가 드디여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김정은**위원장은 2018년 세계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되였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러면서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수뇌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첫 북미정상회담의 최고승자는 **김정은**위원장》, 《**김정은**위원장은 매우 출중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신 위대한 애국자이시

다.》, 《**김정은**위원장의 주동적이고 련속적인 외교공세에 세계시간이 전례없이 빨라진것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커다란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날이 갈수록 온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려정을 보며 그이에 대한 숭배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후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기념주화가 나온 소식 또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국가수반들사이에 세계력사를 변화시키고 국제정치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회담들이 많이 진행되였지만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기념주화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력사적인 회담을 뛰여넘어 《세기적인 회담》으로 명명하고 력사에 없는 기념주화를 제작하였다.

기념주화 앞면의 맨 꼭대기에는 《평화회담 2018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었고 우측에는 공화국기를 바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모시고 둘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이라는 글자를, 좌측에는 미국국기바탕에 트럼프를 형상하고 둘레에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라는 글자를 새기였다.

이것을 놓고 세계가 법석 끓었다.

언론들은 조선이 세긴 세다, 어떻게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저렇게 동격으로 된 기념주화까지 나올수 있는가고 경탄을 표시하면서 이것은 조선이 미국과 같은 초대국이라는것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평하였다.

2018년 6월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의의를 놓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어느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조선은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정전협정을 체결한것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글을 인터네트에 실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1950년대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은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막을 내리였다.

그때 세계는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조선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며 서방세계의 통치자인 미국을 위수로 한 《유엔군》과 정전협정을 체결한것자체가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을 영웅적인민이라고 격찬하였다.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의 교전대방이였던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서명한 문건이였다.

하지만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확약한 문건으로서 미국의 최고통치자가 우

리 나라를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세계앞에 확약한것으로 되였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은 그 내용을 보아도 정전협정문과 대비조차 되지 않았다.

정전협정문은 당시 진행중이던 조선전쟁을 당분간 중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여있었다.

반면에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문제를 비롯하여 공화국이 원하는 모든것이 다 포함되여있다.

조미공동성명의 채택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이번에 조선은 자기들의 철천지원쑤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 국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한 성과물을 따내였다, 이것은 조선의 경사이고 승리이며 나라를 핵대국들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해나가시는 **김정은**위원장의 세련된 정치, 외교술의 승리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 근 250년의 력사가 흘렀지만 대통령이 직접 적대국과 합의한 항복서와도 같은 문건에 수표한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협박하여 항복서를 받아내기만 한 미국이였다. 조선과의 대결에서만은 미국의 이 《영광》과 《전통》이 통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인 외교지략과 비상한 정치실력에 의해 조미수뇌상봉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게 되였다.

에스빠냐의 문호 쎄르반떼스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인물을 위해 남겨져있다고 하였다.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의 이 위대한 승리는 사상과 신념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배짱에서도 제일이시며 외교와 지략에서도 제일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안아올수 없는 세계사적인 기적이였다.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회담

《대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20세기초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였던 윌슨이 한 말이다.

그의 이 말은 거의 한세기동안이나 세계정치계에서 정설처럼 되여있었다. 아니, 21세기인 오늘까지도 미국이라는 초대국의 의사라면 사슴을 보고도 말이라고 강변하는 비굴한 사이비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전례를 깨뜨리는 놀라운 상황이 하노이와 조선의 판문점에서 펼쳐졌다.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 조선반도주변국들의 외교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시대적요구와 격변하는 정세하에서 온 세계의 관심과 기대속에 2019년 2월 웰남의 하노이에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가시려는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회담장에 나가시여 우리의 자주권과 권익을 옹호함에 있어서 단 한걸음의 양보도 모르시였다.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

고 의연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에 나가시여서도 그 어떤 제재봉쇄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라는 억척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대통령이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시여 트럼프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였다.

미국대통령의 판문점상봉요청의사가 세상에 전해진 순간부터 극적인 사변이 이루어진 순간까지 온 지구촌의 눈과 귀가 또다시 조선반도에로 집중되고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하였다.

드디여 2019년 6월 30일 오후 전 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각을 나서시여 미국대통령과 판문점분리선앞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대통령과 120여일만에 또다시 만난데 대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대통령을 안내하여 판문점 우리측지역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미국대통령이 판문점 우리측지역의 판문각앞에까지 오시여 다시한번 손을 잡으심으로써 미국 현직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령토를 밟는 력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였다.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공화국과 미국의 최고수뇌분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력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력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되였음을 보여주었다.

중국과 미국, 로씨야의 언론들은 물론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타르의 《알 자제라》위성TV방송 등이 이미 편성되여있던 방송프로들을 모두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긴급보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 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시간대가 깊은 밤이거나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관련한 소식을 3시간이상 보도하였다. 판문점조미수뇌상봉현장을 직접 목격한 미국인들속에서 《초현실적이다!》는 감탄사가 연방 터져나왔다.

상상밖의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직접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저 놀랍기만 하여 미국취재기자들은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딸 이반카의 입에서도 이 말이 절로 튀여나왔다고 한다.

세계를 감동시킨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회담과 관련하여 내외여론은 이구동성으로 《파격적제안과 과감한 호응》, 《극적 드라마 만든 북미수뇌 <톱다운 케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북미간 비핵화대화가 30일 북미수뇌간 <판문점 번개상봉>이라는 전대미문의 <력사적이벤트>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남쪽에 도착하기 몇시간전인 29일 오전 주요 20개국(G20)수뇌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깜짝 제안을 하고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화답하면서 1953년 정전협정이후 66년만에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북미수뇌들이 마주서서 <력사적악수>를 하는 파격 이벤트가 현실화됐다.》, 《두 수뇌의 파격은 <하노이 노딜>이후 꽉 막혀있던 북미협상의 새로운 문을 여는 중대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미관계의 새로운 리정표를 쓴 엄청난 진전》, 《력사를 뛰여넘을 세기적만남》, 《조미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 등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내외여론은 **김정은**위원장은 《예측불가능한 결단력》, 《대담한 지도력》을 과시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 세계는 왜 주목하는가. **김정은**위원장은 신속한 판단과 거침없

는 결단, 강인한 성격, 대단한 기질로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사변들을 련일 이끌어내며 정치, 외교적리익을 극대화하고있다.》라고 전하였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에서 세계《유일초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제발로 찾아온 사실을 놓고 당시 세계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진 조선이 받을수 있는 응당한 대접이고 권리이라고 하면서 세계여론은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강국으로 이 행성우에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영웅중의 영웅이시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력사의 판문점이 그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던것이다.

한해 남짓한 기간에 세차례의 조미수뇌상봉을 새기며 흘러간 나날은 《시간도 우리 편에 있고 정의도 우리 편에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귀한 명언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 나날이였다.

이것은 절세위인의 의지대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력사의 기관차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사태발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실하게 이끌어낸 백절불굴의 강의한 의지의 최고체현자, 세기의 최강자이심을 다시금 확증하였다.

그 어떤 제재봉쇄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

로 얼마든지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라는 억척불변의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 이어 그해말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다시금 엄숙히 경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는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초점이 강대국에 맞서 기적의 련승을 창조하시는 희세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장군께로 집중되고있다.

어느한 정치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쓰딸린이 레닌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1903년 씨비리류형지에서 편지를 통해서였다. 특히는 1909년이후 《이스크라》가 발간된 이후부터 레닌의 혁명적활동을 잘 알게 된 쓰딸린은 이 비범한 인물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투쟁에서

두려움을 모르며 로씨야혁명운동의 생소한 길로 당을 대담하게 이끌고 나아가는 최고형의 지도자, 산상의 수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1903년말 그의 편지를 받고 《레닌이라는 산상의 수리가 있다는 나의 생각을 더욱 굳게 했다.》고 썼다.

레닌 역시 쓰딸린을 알게 된 후 그를 보통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쓰딸린을 《기적의 그루지야인》이라고 하면서 위싸리오노비치라는 이름은 너무나 평범하다고 하였다. 쓰딸린의 본래 이름은 이오씨프 위싸리오노비치 쥬가슈빌리였다.

위싸리오노비치가 뻬쩨르부르그에서 볼셰비크당기관지 《쁘라우다》와 《즈베즈다》의 발행책임자로 활동할 때 레닌은 강철과 같은 사나이답게 이름을 쓰딸린으로 하자고 권고하였는데 이때부터 쥬가슈빌리는 론문이나 저술에 수표를 할 때 이름을 쓰딸린이라고 썼다.

레닌이나 쓰딸린이 살아있었다면 미국에 땅땅 맞서 굴복시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을 어떻게 칭송하였겠는가. 틀림없이 세계적인 위인, 희세의 령장으로 높이 격찬하였을것이다.

정녕 그렇다.

진정 지켜야 정의이고 떨쳐야 정의이다.

정의는 영원하며 타오르는 불길이다. 불의는 일시이며 꺼지는 불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자주적으로 살고 나라가 나라답게 존엄을 떨치며 번영해가는것이 정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연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력사의 정의의 빛은 진보와 번영의 길을 밝힌다는 진리는 여지없이 증명되였다.

세계여론이 《조선의 발언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며 조선이 세계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랭전시대에는 미국과 쏘련이, 그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었다면 앞으로 조선이 세계흐름을 자주와 정의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갈것이라는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공정하게 평하듯이 **김정은**조선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에 의해 국제사회의 정치적지각과 력학적구도의 변경이 이루어지고있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과연 그 누가 부정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고의 높이에 떠올리시여 진정한 국제적정의실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이시야말로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세기의 수령, 희세의 령장이시다.

2. 조중, 조로친선관계의 승화발전으로

조중친선의 새로운 시대를

평화수호의 결정적요인은 민족주체적력량에 있는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지와 련대성이라는 작용 또한 무시할수 없다.

그런만큼 국제적범위에서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위업수행을 촉진시키며 민족주체적힘을 발휘하는 객관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화수호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네차례에 걸치는 중국방문과 주체108(2019)년 6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습근평총서기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중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출간된 《룡비어천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흔

들리지 않으므로 꽃도 곱게 피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법이요, 또 샘이 깊은 물은 어떠한 가물에도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기때문에 마침내는 큰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가는것이다.》

조중친선이 바로 그러하다.

조중친선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조중친선관계는 공동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관계이다.

오래고도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뗄래야 뗄수 없는 친선이기에 조중친선은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져왔고 사선의 언덕을 넘으면서도 그 본태를 잃지 않았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라들의 구체적실정과 환경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조중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력사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으며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 오히려 두 나라사이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것이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고 지역의 평화적환경과 안정을 수호해나가는데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는것이 다시금 확증되였다.

현실은 일찌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조중친선의 뿌리를 몸소 마련하시고 품을 들여 소중히 가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에 대하여 다

시금 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전 기간 중국의 선대령도자들과 함께 자래우신 조중친선이라는 거목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대를 이어 푸르싱싱한 아지를 한껏 뻗치고 있다.

주체102(2013)년 7월 전승 60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있던 회창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중친선에 쌓으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칭송하시면서 지난 시기 수령님께서 중국혁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신데 대한 력사적사실들을 새세대들이 다 알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중국의 혁명가들과 어깨겯고 함께 헤쳐오시였으며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과 반사회주의책동도 함께 손잡고 짓부셔버리시였다.

성스러운 항일대전의 나날에 조중 두 나라 혁명의 승리와 공동의 리념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수많은 렬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이라는 거목을 자래우는 밑거름으로 되였다.

중국도서 《주보중담화록》에는 항일련군초시기 편성된 제2군은 90%이상이 조선사람이였고 제7군 역시 대부분이 조선사람이였으며 제3군조직에서는 조선사람이 중추적역할을 놀았고

조선동지들이 대중을 교양하였기에 9.18사변이후 동북사람들이 혁명적으로 일떠서 반일투쟁을 할수 있었다고 서술되였다.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일제패망후 중국에서 일어난 국내전쟁때에도 함께 싸우며 동지적의리와 우정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국내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중국 동북땅에서 피흘리며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동북항일련군의 전우들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 당시 동북땅에서는 항일유격대출신의 우수한 군정간부들인 강건, 박락권, 최광을 비롯하여 약 25만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동북해방전투에 직접 참가하고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동북해방전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온 장춘, 길림, 심양해방전투는 물론 중국관내와 멀리 해남도까지에 이르는 수만리길에서 벌어진 치렬한 전투들에서 수많은 조선의 아들딸들은 새 중국의 탄생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과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

하기에 중국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정말 지혜롭고 용감하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전 동북민주련군 지휘관이였던 황옥청은 자기의 회상실기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되새기며》에서 이렇게 썼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용한 조선의 영웅전사들에 의하여 동북해방작전의 나날에 중요전투들마다 아군의 진격로들이 개척되였었다.

동북에 침입한 국민당군의 허리를 끊어놓은 사평전투에서도 조선공병들은 10만대군이 의거하여 발악하고있던 견고한 방어시설들을 수십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까부시는 피어린 폭파전투를 벌려 마침내 승전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꼈다.

치렬성에서 쓰딸린그라드격전을 방불케 한 이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수많은 피끓는 조선의 남아들이 사평의 한치한치의 땅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목숨바쳐 승리를 가져왔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시가의 일목일초도 무심히 대할수 없을것이다.》

동북해방전쟁과 전국을 해방하는 전투장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신화처럼 퍼져있었다.

전쟁 전 기간 국민당군대는 물론 장개석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과 전술에 자기들이 녹아났고 《북조선에서 군대를 보냈기때문에 우리가 패했다.》고 개탄하였다.

동북해방전쟁과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국제적지원의 가장 빛나는 모범이며 중국혁명에 대한 지원의 길에서 조선의 애국자

들이 중국대지에 뿌린 선혈은 오성홍기의 색조를 더욱 진하게 하는 귀중한 영양소로 되였다.

일찌기 중국의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고 절절히 말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심없는 지지성원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표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에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한전호에서 싸웠다. 모택동주석의 아들 모안영과 상감령의 황계광영웅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원군용사들이 조선전쟁에서 고귀한 청춘을 바치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조선의 산과 들에 붉은 피를 뿌린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들의 위훈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조중친선은 그 어떤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나날이 강화발전되여왔다.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는 두터운 동지적우의와 신뢰관계를 맺으시고 조중친선관계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시고 꿋꿋이 자래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의 령도자들과 외교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자주 만나 우애의 정을 깊이하시면서 조중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여러차례 중국을 방문하시면서 조중

친선의 년대기에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시고 가꾸어오신 조중친선을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을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중친선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중친선의 오랜 력사적전통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중친선의 오랜 력사적전통과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실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107(2018)년 3월 대외활동의 첫시작으로 조중친선의 전통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빛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전례없이 격변하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하에서 2018년 한해에만도 국제적인 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련속 세차례 중국방문을 단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본래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나날 여러 차례에 걸쳐 습근평총서기와 상봉하시고 조중친선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정세관리문제들을 비롯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나누시였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국방문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의 불변성, 불패성을 과시하고 수십년간 다져진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운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큰 기여를 한 충격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세계 많은 나라의 언론들은 《조선최고령도자 중국방문》, 《조선과 중국 많은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보다》 등의 제목하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국방문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이께서 단행하신 중국방문은 조중친선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공헌을 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였으며 조중수뇌회담으로 량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지역과 세계의 평화질서에 긍정적인 동력을 마련하였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국방문소식을 전하며 《최고례우》, 《특급환대》, 《최상급의전》이라고 하면

서 그이의 중국방문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를 세차게 뒤흔들것이며 **김정은**위원장의 구상과 결심, 의지대로 정세가 힘차게 흘러갈것이라고 평하였다.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꽃이 더욱 활짝 피여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중친선단결의 새시대, 조중우의의 전면적부흥의 력사가 펼쳐지는 속에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주체108(2019)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청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총서기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것은 내외의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인민일보》는 《습근평주석의 방북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기념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신시대 중조관계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새로운 공헌을 할것》이라고 강조했는가 하면 《중조수교 70년이라는 력사적시기에 중조최고령도자들이 우호의 새 장을 열어가고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방문에 앞서 습근평총서기는 《로동신문》에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조친선의 노래》가 전해주듯이 조선동지들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시대에 중조관계가 풍랑을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추동할것이라는것과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중조친선이라는 큰 나무가 반드시 무성한 가지와 잎을 펼치고 영원히 푸르청청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중앙일보》는 《습근평, 61년전 노래로 평양땅 밟았다》는 제목하에 습근평총서기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친선이 있고 우리에게는 공동의 리상이 있으며 우리의 단결은 비할바없이 강하다는 노래가사처럼 중조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풍랑을 헤치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추동하겠다고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친선》과 《리상》, 《단결》은 습근평총서기가 이번 평양방문에서 사용한 3대핵심어이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오래고도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습근평총서기를 뜨겁게 맞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총서기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야말로 조중친선의 변함없는 핵이며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중친선의 특수성과 불패성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리

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호상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고위급래왕의 전통을 유지하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켜나갈데 대한 합의들이 이룩되고 그 어떤 정세의 변화와 도전에도 끄떡없이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줄기차게 강화발전시켜나갈 굳은 의지가 확약된 평양에서의 상봉과 회담의 나날이였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과 습근평총서기와의 력사적인 상봉들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조중최고위급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선택인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 검증되고 더욱 강화되여온 조중친선관계가 새시대에 맞게 새로운 활력기에 들어선 오늘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뜻과 정을 나누고 생사를 함께하며 마련하고 다져온 조중친선의 위대한 전통을 확고히 고수하고 조중친선의 불변성, 불패성을 길이길이 빛내가고있다.

조로친선의 새로운 장을 여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선과 로씨야와의 친선관계도 더욱 빛나게 발전시켜나가고계신다.

조선과 로씨야는 친선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린방이다.

조로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여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로친선관계는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뿌찐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여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두터이 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조로공동선언, 조로모스크바선언과 2000년 2월 조선과 로씨야련방사이에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되였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림을 모른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해마다 무성하게 아지를 치고

잎은 더 푸르러 설레이고 년륜을 뚜렷이 새기는것이다.

조로친선이야말로 억센 나무뿌리와 같이 깊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신 조로친선의 력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이어지고 발전하고있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새시대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고 력사적인 조로수뇌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형편을 통보하시고 호상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며 새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또한 국가건설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시였으며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나가기 위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해나가기 위한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문기간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는 가운데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조국을 위한 싸움에서 희생된 영웅적군인들에게. **김정은**》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파쑈와의 전쟁에서 피흘려 싸운 로병들이 사회의 버림을 받고있는 때에 한없이 고결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를 찾으시여 영웅들의 무비의 희생정신을 추억해주시며 그들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그 고결한 인품앞에 사람들은 몹시 감동되였다.

돌이켜보면 2000년 8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방문의 길에서 보여주신 숭고한 도덕의리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레닌묘방문은 복잡하고 혼탁된 정세의 흐름을 정화시키는 불멸의 화폭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였으며 온 세계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레닌의 시신이 안치되여있는 붉은광장의 레닌묘는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쏘련이 해체된 후 버림을 받고 한적한 곳으로 되여있었다. 그러했던 레닌묘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쏘련해체후 외국국가령도자로서 처음으로 찾으신것이였다.

로씨야신문 《글라스노스찌》 책임주필은 그이의 레닌묘방문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씨야의 참된 혁명가들에

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대용단이였으며 **김정일**동지와 같으신분을 따를 때 사회주의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겨준 사변이였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에서 레닌묘와 함께 무명전사묘도 찾으시였고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을 때에는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있는 삐스까료브공동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하바롭쓰크시에 가시여서도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어찌 그뿐인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국제적의리에 대한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가운데 이전 쏘련군대 군관이였던 노비첸꼬 야꼬브 찌호노비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고있다.

그가 해방직후 평양역전광장에서 있은 3.1운동기념행사때 반동놈들이 주석단쪽으로 던진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영웅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십년세월이 흐른 1984년 5월 이전 쏘련방문의 나날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가 가족들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여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방문한 그를 접견해주시고 공화국의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를 형상한 예술영화까

지 만들도록 하여주신 고귀한 인간적의리와 정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는 세기를 이어 조로 두 나라 인민들속에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방문과 관련하여 세계여론들은 로씨야의 국경역인 하싼역에 내리신 **김정은**위원장은 환한 미소와 여유롭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상대국에 대한 례의표시 등으로 로씨야를 자주 찾았던 **김일성**주석을 련상시키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대국외교를 펼치신다, 가는 곳마다 모든 대국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대히 맞이하는것을 보면 **김정은**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과 꼭같으신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다라고 격찬하였다.

언론들은 뿌찐대통령이 원동련방종합대학 현관앞까지 나와 북최고지도자를 직접 영접하고 국무위원장추대와 관련한 축하의 인사를 거듭 전한데 이어 만찬이후 또다시 현관밖으로 나와 배웅하면서 전례없는 《극진한 례우》를 이어간것이라든가 뿌찐대통령이 회담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대단히 개방적이며 사려깊다고 한것은 북최고지도자의 위인적 품격과 특출한 외교실력에 대한 고백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특히 **김정은**위원장은 불과 1～2년사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광폭정상외교를 이어가면서 갈수록 담대해지고 자신감

이 넘친 지도자의 위상을 굳혀가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조로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릴 결심을 안으시고 뿌찐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시여 단독회담, 확대회담, 만찬을 포함하여 근 5시간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조로관계발전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시고 견해일치를 보시였으며 《스트롱맨》(강한 사나이)끼리 장검을 선물로 주고받으시는 등 끈끈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번 조로수뇌자회담이야말로 전세계에 **김정은**위원장의 높은 국제적명성을 과시한 계기로 되였다고 세계의 여러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은 조로관계를 《항일대전의 투쟁속에서 피를 바친 전우들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이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전략적방침이라고 천명하심으로써 조로혈맹관계를 회복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또한 뿌찐대통령이 회담에서 **김일성**주석의 로씨야방문과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조로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등을 상기하고 회담이후 조로관계의 력사와 실태, 전망에 대해 모두 론의하였다고 한것은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력사를 되살리겠다는 의미이다, 조로정상이 회담을 통해 최고위급상봉을 포함한 고위급래왕을 강화하며 두 나라 정부와 국회, 지역, 단체들사이의 협력과 교류, 협

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뿌찐의 평양방문을 합의한것은 조로관계가 전면적협력관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선포한것이라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가져오시였다는 내외의 격찬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계기로 이미 조중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과 전략전술적협동을 합의하신데 이어 로씨야방문을 통해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조로사이의 전략적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시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와 민심을 반영한 당연한 평가였다.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친선방문이야말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부합되게 더욱더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이 격동적인 사변들은 걸출한 위인에 의하여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정치의 기류가 자주와 정의, 평화와 번영에로 흐르게 된다는것을 재삼 실증하여주고있다.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시고 국제정세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비상한 전략적안목으로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자주와 정의에로 주도해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조선반도는 물론 우리 행성에 인류가 념원하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환희롭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3. 강대성의 상징,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반향)

지난날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던 나라라고 하여도 오늘날에 와서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결심이 서있다면 함께 손잡고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립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대외정책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국제 및 지역기구에 가입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문화적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세계의 78개 나라와 16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에서 온 수백개의 대표단들이 참가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특사,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는 세계가 우리 국가에 대한 리

해를 깊이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중국, 로씨야, 꾸바, 몽골, 수리아, 메히꼬,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끄 등 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정당, 단체들, 국제 및 지역기구와 각계 인사들이 730여건의 축전과 축하편지를 드리였으며 310여상의 꽃바구니들을 보내여 인류자주위업을 성공에로 줄기차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오늘 비범한 정치실력과 천재적인 외교지략, 담대한 결단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며 세계정치를 주도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행성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세계의 광범한 언론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조선의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외교활동방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외교방식은 세계를 매혹시키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그이를 《강대성의 상징》,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 《특출한 외교력을 과시하시는분》, 《자신감을 안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시는 로숙한 정치가》, 《전략적으로 능숙하신 지도자이시다.》라고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행성의 공간을 꽉 채우며 국제사회를 휩쓸고있는 반향들가

운데서 그 몇가지를 본다.

●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분은 다름아닌 조선의 **김정은**령도자이시다.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시는 그이의 령도예술에 국제사회가 경탄하고있다. 위대한 정치가, 걸출한 령도자에 대한 매혹과 찬탄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김정은**령도자는 불가능을 모르고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시는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세계는 그이의 모습에서 력사의 시련과 모진 광풍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불의를 짓부시며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있다.》(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정은**각하께서는 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있는 령도자>,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으신다. 그이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대단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이며 포괄적이라는것이다. 여러 차례의 중국방문과 조미수뇌상봉이라는 수뇌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여 특대사변들을 련속 안아오신 **김정은**각하의 박력있는 외교활동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이란의 《일나》 통신)

● 《**김정은**각하께서는 독창적인 로선, 자주적인 정책으로 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일떠세우신다. 조선이 그 누구의 압력

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계가 조선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막강한 군력을 가진 강국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인도네시아 쟈까르따국립종합대학 부총장)

- 《**김정은**령도자의 외교활동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라는 전략적목표를 이룩하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참으로 뛰여난 외교의 거장이시다. 조선반도정세가 앞으로도 그이의 의지에 따라 흘러갈것이라는데 대한 분석은 시간이 증명할것이다.》(캄보쟈의 《아까뻬》 통신)

- 《지구상에 **김정은**동지와 같으신 위대한분이 계신다는데 대해 크나큰 긍지로 간주한 진보적인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는 존경의 마음 안고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사회주의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 《**김정은**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담력과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시다.》(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나우로즈》)

-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동지는

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그이를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열렬히 흠모하고 있다.

김정은동지의 뛰여난 자질과 출중한 풍모는 만민을 매혹시키고있다.》(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

●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사회주의위업은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조선은 날이 갈수록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되고있다. 세계인민들은 조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변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다.》(로씨야지역사회조직 《보로지노》 위원장)

●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최근년간 조선은 경제건설과 국방분야에서의 비약적발전, 과감하고 주동적인 대외활동에 의한 세계평화보장 등의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국가령도자로서의 그이의 능력을 잘 알수 있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여난 정치가, 창조적능력이 높고 실천력이 완강한 지도자,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인식이다. 국가지도자로서의 **김정은**각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자주적대가 강하며 도덕의리심이 매우 깊은분이시다.》(라오스신문 《꽁탑빠싸손라오》)

●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지도자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시는 **김정은**위원장은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

이시며 가장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지니신 매혹적인 정치가이시다. 다재다박하신 그이는 일단 구상한것은 반드시 실천하고야마는 제일의 창조자이시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 단호하고 령활무쌍한 기질을 지니신 령장, 민족존엄의 최고수호자이시라는것이 세계정치계의 평이다.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로 꿋꿋이 나가고있는데 대해 세상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 요인을 **김정은**위원장의 특출한 령도력에서 찾고있다.》(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

●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오늘 조선은 대국들도 두려워하는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조선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나라의 최고령도자각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조선의 현실에서 많은것을 따라배워야 한다.》(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높은 국가정치가>, 이것이 오늘 조선의 **김정은**령도자에 대한 만민의 칭송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실황중계로 뵈올수 있었던 그이는 너무도 멋진 지도자이시였다. **김정은**령도자는 정치계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세계정치계의 거성>이시다. 그이께서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시고 비상한 결단과 능란한 협상력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시

하고있다.》(캄보쟈신문 《크메르 타임스》)

● 《**김정은**령도자께서 세계의 초점을 모으시는것은 그이의 출중한 령도력과 비상한 전개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때문이다. 그처럼 멋진분이시니 조선도 인류가 경탄하는 별세상으로 전변되고있다. 멋진 정치, 멋진 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찬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이밖에 미국잡지 《네이슌》, 신문 《워싱톤 포스트》, CNN방송,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 카나다신문 《토론토 스타》 등도 조선반도정세완화의 눈석이는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주동적인 제안들을 내놓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정세는 그이의 판단에 따라 흘러가고있다, **김정은**령도자는 뛰여난 전략가이시다,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주도적역할을 하고있다, 앞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김정은**령도자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흐를것이다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참으로 정치적예지와 전략적결단, 우주를 포옹하는 거인적아량과 주동적인 헌신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위상은 만방에 더욱 과시되고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면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 조선은 세계평화수호의 본보기이다. 오늘의 복잡다단한

세계정치구도를 바로잡을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으며 그 중심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장군께서 서계신다.

바로 이것이 세계의 일치한 견해이다.

세계는 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세상천지가 요동치든 횡포한 제국주의가 본색을 드러내든 태양은 조선에서 더 높이 떠오를것이며 조선을 축으로 지구가 도는 력사의 자전은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참을수 없는 횡포를 결단코 허용치 않으며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평화를 말살하는 온갖 부정의를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인류에겐 희망이 있으며 지구는 반드시 평화로울수 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김정은**조선이 질풍노도쳐 나아가고있다.

맺 는 글

위대한 강국시대 **김정은**시대의 10년세월.

강대성의 상징이신 만고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지닌 세계적인 강국전렬에 솟구쳐올라 민족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강대한 나라로 세계정치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자주적인 세계질서를 구축해가는 위대한 강국으로 날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무릇 강국의 출현에는 그것에 바쳐진 진통과 노력이 있고 위대한 성공과 승리에는 반드시 그를 떠올린 값비싼 피의 대가와 희생이 동반되기마련이다.

전대미문의 침략위협과 제재봉쇄가 가해지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과 같이 그토록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위대한 헌신으로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나라의 운명과 지위를 그토록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신 정치가는 고금동서에 전무후무하다.

한 국가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그 나라, 그 인민의 자주권행사와 높은 권위, 발전과 번영의 거대한 잠재력과 양양한 전도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일진대 전략적지위는 결코 령

토가 유리한 지정학적위치에 있거나 억대의 자원과 거대한 경제력에 의하여 저절로 차지하게 되는것이 아니다.

이름은 있어도 지위가 없는 나라, 재부는 넘쳐나도 힘이 없는 나라, 땅은 넓어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령도를 받는 조선이 마침내 미국과 그 렬강들을 발밑에 딛고 일어나 이제는 자신들이 그 무리들을 다스릴수 있는 힘을 지니고 민족수호, 평화수호의 위대한 강국으로 솟구쳐올랐으니 어찌 이 행성이 통채로 끓어번지지 않을수 있으랴.

이것은 세계의 신화일뿐 아니라 반만년이래 **김정은**조선이 올라선 력사의 최절정이다.

위대한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으로 천백배의 힘이 솟는다.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수소탄보유국,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하고 전략잠수함 탄도미싸일을 보유한 강국, 이동식발사대차를 리용한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강국…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 주체조선의 막강한 힘을 어찌 다 말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최상최고의 높은 지위에 과연 어떤 나라가 올라섰고 이 최강의 전략무기를 과연 어떤 인민이 손에 틀어쥐였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세계의 렬강들과 같이 그 어떤 침략

과 패권추구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인민을 하늘로 여기는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국가 **김정은**조선이 자기의 운명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아름다운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쟁취한 가장 고귀한 승리이다.

《절대병기》와 최첨단전략무기들을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절세의 위인, 희세의 령장의 령도를 받는 인민, 피바다와 불바다, 재더미와 고난의 천만리속에서 강철의 정신력을 대를 이어 다져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인민이 보유한것으로 하여 주체조선은 세계제일의 강국, 천하무적의 나라이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우리 조선이, 우리 인민이 세계적인 강국전렬의 높은 지위에 올라선것이 얼마나 가슴벅차오르는것인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의 마수가 도처에서 뻗쳐온다 해도, 지구상의 적대세력들이 무리지어 달려든다 해도 모든 전략무기를 다 틀어쥔 이 조선은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길것이다.

이룩한 승리도 비길데없이 크지만 그 승리로 하여 가슴에 지니게 되는 자기의 위업, 자주와 정의, 평화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더 백배해진다. 이것은 더 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그 무엇도 두려운것 없이 보다 큰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 나아가게 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전도와 미래는 전적으로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령수에 달려있으며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것처럼 최상최대의 행운과 영광은 없다.

위대한 령수를 높이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 해외동포는 인터네트통신에 다음과 같이 한껏 터쳐올렸다.

《현세기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세기로 될것이다.

민족의 안전도,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도 **김정은**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이 있어 유지되고 담보될것이다.

김정은령도자는 그대로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빛이요, 힘이며 열이다.》

진정 그렇다.

기나긴 세월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려온 위대한 강국의 지위에 솟구쳐올라선 조선이 이제 백두산천출명장, 만고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의 령도따라 또다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것인지 21세기가,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선망의 시선을 보내며 지켜보고있다.

그리고 열렬한 지지와 성원의 함성을 터치고있다.

민족의 운명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지역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위대한 **김정은**조선이여! 영원무궁토록 강성번영하라!

민족운명의 수호자 **김정은**장군

저　　자	박사 김혜련, 오보람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5월 19일
발　　행	주체111(2022)년 5월 23일

ㄱ－1540ㄷ

ISBN 978-9946-31-159-3

ISBN 978-9946-31-159-3